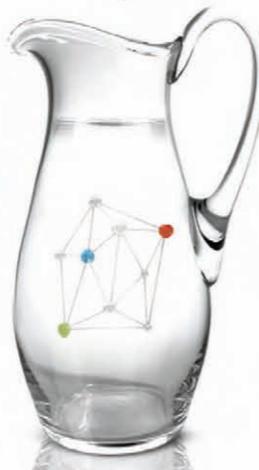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삼양,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요?**



삼양의 독자 효소 기술
저칼로리 기능성 당류로,
당신의 삶 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筆巖書院 山仰會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제호 글씨 朴秉濠

— 제35호 목차 —

하서(河西), 가을을 노래하다	2
하서(河西)가 흠모했던 성리학자 김상호(金翔浩)는 누구인가?	3
김재수(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하서 김인후 선생과 덕계 오건(吳健) 연구	8
김장수(동양문헌학회 본회 이사)	
하서 사상과 인격의 실질적 계승자 인촌 김성수	30
인촌(仁村) 선생 이야기	31
김형석(연세대학교 교수)	
인간 자본으로서의 인촌의 모습과 친일에 대한 시비 문제	35
백완기(행정학 박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인촌(仁村) 김성수 선생의 꿈	46
신광조(인촌사랑방 대표)	
너희가 빛진 것 하나도 없다	48
- 한국전 참전용사 윌리엄 빌 웨버 대령의 말씀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을 곁에 두고 오래도록 즐기는 방법, 『자연관찰일기』	50
필암서원·산양회 소식	52

입회비는 3만 원, 연회비는 5만 원. (사)필암서원산양회 계좌(농협 351-1175-2599-63)

하서河西, 가을을 노래하다

촌경 村景

가을 다한 동산 숲에 나뭇잎 드문드문
창 마주쳐 맑은 해는 갠 빛을 굴리누나
층층 뒀 어리비쳐 새론 그림 생겼는데
해맑은 먼 공중에 새는 홀로 날아가네

신내한에게 올림 上申內翰

청산이라 저물녘 잊은 듯 서서
녹수라 한가을을 미친 듯 읊네
잡았던 손 놓으니 서로가 만 리
돌아보면 바다 하늘 유유하구려

* 신내한 : 신잠申潛(1491~1554) 호는 영천靈天.

반딧불 螢火

서늘한 가을이라 고요한 밤에
예서제서 반딧불이 날아다니네
번뜩번뜩 언제나 가만 있잖고
구구하게 애를 써 밟으려 드네
아까는 별과 함께 반짝이더니
이윽고 먼 촛불과 함께 빛나

서책을 보기에다 부족할진대
더구나 그림 병풍 비취 줄손가
갈원에서 유숙하는데 宿葛院
갈원이라 가을 밤 달빛 밝은데
우물가 모여 앉아 술을 마시네
바람 이슬 이처럼 서늘도 한데
은하랑 별도 역시 찬란하구려
호남이라 만리 길을 함께 떠나와
한양에서 각기 다 외롭게 자네
떠도는 몸 뉘 먼저 언약을 했나
서로 만나니 이제 곧 좋은 인연

* 갈원 : 평택에 있음. 호남에서 서울 가는 교통 요충지.

시월의 뇌성 十月雷

병病중이라 밤비도 겁이 나는데
시월에 천둥이라니 마음 놀래라
성난 벼락 타고 번개가 몰아치더니
검은 바람 따라 우박을 쏟아내구나
멈출듯 하다가 어느새 성내듯 달려들면
찬 소리 다시 오래 떠들석하네
새벽 닭이 울어 푸른 빛 독촉하고
아침 해 오르고서야 괴로움 쓸어담네

하서河西가 흠모했던 성리학자 김상호金翔浩는 누구인가?

김재수(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1. 『여우인서』에 모습을 드러낸 김상호

하서는 『여우인서與友人書』에서 “일찍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옛일에 상고하는 것이 현실에 증명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서적을 뒤적이는 것이 사람에게 참조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우연히 김상호金翔浩를 만나서 함께 절간에 모여 비로소 한 가닥 지론至論을 들었으나 그에게 종유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가슴 속에 쌓인 것을 다 물어보지 못하고 도리어 서로 작별하였으니 이제껏 회상할 때 개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김상호에게 지론을 들었으나 가슴 속에 쌓인 것을 다 물어보지 못하고 작별한 것을 하서가 개탄한 것을 보면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김상호의 학문이 대단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 사이 유군柳君(미암 유희춘을 말함)

이 기록한 왕복서간 속에서 신독愼獨 두 글자를 얻어 보고는 더욱 경의를 표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아! 이는 바로 증자曾子 자사子思의 주교받은 바요 정주程朱의 재삼 새기고 새긴 것인데 뜻밖에도 이 세상에 다시 이 말을 하는 이가 있음을 보겠으니 이는 바로 일찍이 스스로 힘쓴 것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로써 남에게까지 미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 흠모하는 문정門庭에 달려가 마침내 뵈게 되었는데 인사를 차린 나머지에 다른 말 할 겨를 없이 먼저 호유湖儒에 언급하였으니 그 선품을 좋아하여 마지않는 가극한 마음은 이미 스스로 볼 수 있었으며 김상호라는 이름이 나오자 말자 곧 즐겁게 들으면서 ‘진실로 그렇다’하였은즉 내 자신이 김상호를 사모하는 그것과도 이미 서로 묵계黙契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의 인용은 하서가 마음을 기울여 흠모하는 우인友人의 집 뜰에 달려가 나누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사를 나누고서 호

남의 유학자들을 언급하였는데, 김상호라는 이름이 나오나마자 곧 즐겁게 들으면서 ‘진실로 그렇다’고 우인 말했다는 것이다. 하서 자신이 김상호를 사모하는 것과도 이미 서로 목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하서도 하서가 지극히 흠모하는 우인도 김상호가 호남의 드높은 유학자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호남에서 유학자로서 그의 명성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여우인서與友人書』는 하서가 지극히 흠모하고 존경하는 우인에게 고백한 ‘하서 학문의 이력서요 성장기’라 할 수 있다. 위의 인용에서 보았듯이 매우 진솔하게 자신의 학문 성장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신독愼獨을 논의하면서 유희춘, 증자, 자사, 정주를 들추어 우인에게 자신의 학문적 성장을 고백하는 중요한 맥점에 김상호라 인물을 거론했다는 것은 하서가 그를 얼마나 사모하고 중시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호에 대한 기록은 하서집에서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고 그에 대한 시 한 편만 달랑 나온다.

金翔浩於竹下邀余

김상호가 대숲 아래서 나를 초대하다

김상호는 이 시대 사람이지만 今代金翔浩
그 전신은 옛적 왕자유라네 前身王子猷
평생에 대 보기를 하 사랑하여 生平愛看竹

벽이 되니 말자도 말 수 없구려 有癖不能休
소상이라 옥낭간 두어 즐기가 瀟湘數莖玉
다행이도 여기 북쪽 담 모퉁이에 幸茲北牆頭
그대는 틈만 나면 바로 찾아와 君來有時就
나를 청하여 함께 노닐었다오 邀我以共遊
이비의 눈물자국 어루만지니 摩挲二妃血
천추에 남아있네 원망과 한이 怨恨留千秋
손을 들어 가변 가지 흔들어보니 舉手弄輕梢
잎새마다 으시시 맑은 바람이 葉葉風颼颼
금오라 그림자는 춤을 추듯이 金烏影婆娑
너울너울 옷자락에 침노 하누나 搖曳侵衣裳
소삼한 게 바로 그 정신이라면 蕭森儘精神
표쇄하여 더욱 더 풍류로구려 飄灑益風流
지금은 난(鸞)새가 날개 쳐 울고 翔鸞今噉噉
옛적엔 봉황이 깃들었느니 彩鳳昔夷猶
머지않아 옥률에 조화되리니 行將調玉律
즐거워라 이밖에 무얼 구하랴 樂矣夫何求

이 시는 『여우인서』 이후에 쓰진 것으로 보인다. 『여우인서』에서는 가슴 속에 쌓인 것을 다 물어보지 못하고 작별한 것을 개탄하였으나, 이 시에서는 ‘그대는 틈만 나면 바로 찾아와 나를 청하여 함께 노닐었다오’ 했기 때문이다. ‘이비二妃의 눈물자국 어루만지니 천추에 남아있네 원망과 한이’라는 구절에서 인종의 억울한 죽음을 원망하고 있으니, 분명 인종 사후에 쓰졌다. 즉 하서가 인종의 죽음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고 애도한 그 유명한 시 「유소사有所思」 이후에 쓰진 것으로 추정된다.

평생 대보기를 사랑한 김상호의 전신이 왕자유라면서 끌어온 구절이다.

다음으로 눈에 번쩍 띄는 구절이 ‘지금 은 난새가 날개쳐 울고 상란금회회翔鸞今噉噉’이다. 상호翔浩라는 자와 경란景鸞 이름이 암시되어 있다. 이로써 상호는 김경란의 자字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것도 모르고 20년 동안 김상호라는 인물을 찾아 헤매었으나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니!

2. 상호翔浩는 김경란金景鸞의 자字, 광산김씨光山金氏 김주金柱의 아들

상호翔浩는 김경란金景鸞의 자임이 밝혀졌다. 광산김씨 김주金柱의 아들로 전북 고산高山현 출신이다.

기묘사화가 일어났던 1519년에 정암 조광조가 성균관 유생 가운데 박광좌朴光佐, 이세명李世銘, 김경란金景鸞 세 사람을 뽑아 중종 임금 앞에서 강하게 했는데, 중종이 묻는 말에 한마디도 답변을 못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정암 조광조에게 뽑혔으니 성균관에서 탁월한 유생으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문헌에 복재 기준奇遵과 나란히 거명되는 것으로 보아도 당시 그의 위상과 학문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생몰연대는 알려진 바 없으나 1519년 기묘년에 성균관 유생인 것으로

보아 그때 나이를 대략 15~19세로 보면 1500~1505년쯤에 출생했으리라 추정된다. 그렇다면 퇴계 이황과 비슷한 연배일 것이다.

이처럼 명성이 자자하게 촉망받았던 선비 김경란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광조에게 뽑혀 중종을 알현까지 했는데, 바로 기묘사화가 일어나 정암이 사약을 받아 죽게 되었으니, 그 충격과 애통과 좌절이 어떠했겠는가? 엄청난 역사의 회오리에 극심한 충격과 좌절로 은신해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중종29년(1534년)에 뒤늦게 진사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그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중종29년(1534년) 식년진사시에 100명이 합격했는데, 노수신盧守愼, 채승선蔡承先, 김희년金禧年, 허봉, 최학령, 홍세희洪世熹 등이 동방이다. 노수신, 김희년, 채승선, 최학령은 하서와 교유가 잦았던 인물들이다. 이때에 광산김씨 가문에서 3명이 합격한다. 이분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경란金景鸞: 자字 상호翔浩. 1534년(중종29년) 사마시 3등 48위. 전북 고산高山 현 출신. 父: 김주金柱, 학생, 중종38년(1543년) 생원.

김경홍金景鴻: 자字 상부翔溥, 1534년(중종29년) 생원3등 18위. 회덕 거주.

김경희金景熹: 자字 용회用晦 1534년(중

종29년) 식년시 34위, 전북 고창 거주

이들은 전북 고산, 고창, 충남 회덕에 거주하였고, 같은 黟자 향렬이며, 특히 경란과 경홍은 자까지 翔자를 쓰고 있어 형제이거나 아주 가까운 집안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문집이나 기록이 없어 김경란에 대한 자료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전북 고산현, 고창, 충남 회덕, 논산, 연산에 거주했던 광산김씨 가문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에는 사계 김장생가문이 세거해 왔다.

특히 순창군 인계면 마흘리에는 조선8대 명당이라는 김극뉴金克紐의 묘소가 있고, 윗대의 김희金僖, 김소운金昭胤, 김개金鑑의 묘소들이 줄지어 있다. 이분들은 모두 사계 김장생의 선조들이다. 고산현 출신 상호 김경란이 순창 인계면의 선산에 은거하면서 가까운 순창의 강천사와 훈몽재에서 하서 김인후를 만났을 것이다.

3. 하서는 상호 김경란을 강천사와 훈몽재에서 만났을 것이다

하서는 우연히 절간에서 김상호를 만나 지론을 들었다고 『여우인서』에 썼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워낙 많았다고 했다. 그 절

은 어디일까? 순창 팔덕면 강천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조 때 송익필이 강천사剛泉寺라고 고치기 전에는 복천사福川寺, 혹은 福泉寺라 했다.

강천사는 1515년에 담양부사 놀재 박상朴祥, 순창군수 충암 김정金淨, 무안현감 석헌 유옥柳沃이 인대를 벗어 나무에 걸어 놓고 폐비 신씨愼氏의 복위를 주청하는 상소를 올린 곳이다. 이 상소가 기묘사화의 도화선이 된 데다 산수가 절경이어서 이 고장 선비들의 모임이 매우 잦았던 곳이다. 하서는 이곳 팔덕면에 처가가 있었고, 순창 남산에 외가가 있었기에 자주 들렀던 곳이다. 이런 연유로 하서는 순창 북흥면 점암촌에 훈몽재를 짓고 제자들을 길렀다. 특히 경연經筵에서 만난 선배였던 문암 김진종金振宗이 순창에 유배 중이어서 강천사와 귀래정에서 자주 만나 여러 편의 시를 화답했었다. 상호 김경란은 고산현 집에서 인계면 마흘리 선산에 가는 길목에 있는 강천사를 거쳐 갔을 것이다. 더욱이 마흘리 선산에서 은거했다면 아주 가까운 곳이어서 자주 갔을 것이다.

「김상호가 대숲 아래에서 나를 초대하다」란 시에서 하서는 “그대는 틈만 나면 바로 찾아와 나를 청하여 함께 노닐었다오”라고 읊고 있다. 김상호가 틈만 나면 찾아와 만난 곳은 훈몽재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자주 찾아와 어울렸다면 반드시 시로 화답했을 텐데 시문이나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4. 맺는 말

김경란은 매우 중요한 호남유학자다. 하서가 마음을 기울여 흠모했던 우인이 먼저 호남의 유학자를 언급하면서 김상호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곧 즐겁게 들으면서 진실로 그렇다고 했고, 하서도 전적으로 공감했음이 이를 증명한다. 필자는 하서가 흠모했던 우인이 규암圭庵 송인수宋麟壽(1499~1547년)라고 추정하여 본 산양회보 11호에 ‘규암 송인수와 하서’를 쓴 바 있다.

규암 송인수는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인 모재 김안국의 문하에 드나들며 학문을 연마했다. 퇴계, 주세붕, 이언적, 정황, 김인후와 절친했다. 하서가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자주 만났으며, 모재 문하에서도 자주 만났다. 규암 송인수는 전라도관

찰사로 내려와서 성리학의 진흥에 전념한 것으로 유명하다. 1543년 영광에 기영정耆英亭을 세우고 인근 13고을 수령들의 협조를 얻어 성리학을 장려하고 학문을 토론했는데, 특히 남평현감 유희춘, 무장현감 백인걸과 뜻이 맞았다.

하서가 흠모했던 우인이 규암 송인수라는 필자의 추정이 맞는다면 그는 호남유학자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 송인수가 인정하고 극찬했다면 김상호는 호남의 대단한 유학자임이 분명하다. 기호학파와 호남유학을 연결하는 중요 인물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인물임에도 문집이나 기록이 없어 그 어디에서도 상호 김경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유일한 희망은 광산김씨 족보를 추적하여 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한 가닥 실마리라도 찾는 것이다. 그와 관련되시는 광산김씨 문중에서는 그의 가계도를 추적하여 알려주심으로써 가문의 영광을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과 덕계 오견吳健 연구

김장수(동양문헌학회 회장 본회 이사)

1. 들어가는 말: 덕계 오견은 하서의 제자인가?

필암서원 원지에 실린 하서문인 18인 가운데 호암 변성온, 금강 기효간, 월계 조희문, 송강 정철, 고암 양자징, 고반 남언기, 영회정 노적 등과 함께 덕계 오견이 들어 있다.

덕계 오견은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을 직접 찾아가 배웠고 이와 관계된 시문과 주고받은 서간이 남아 있어 남명과 퇴계의 제자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하서집문에서는 그러한 기록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옛 어른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견을 하서의 제자라고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근거가 있으려면 하서집에서는 문집 편찬자들이 동문수학하였던 인연을 전란 등으로 순탄하게 이어오지 못하였기에 모든 유문遺文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도 없으며 글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많기 때문이다.

덕계 오견은 1521년 (중종 16) 경상도 산음현(지금의 산청군)덕천리에서 태어났다. 영우嶺右의 산청, 함양, 거창, 함안, 진주는 전라도의 담양, 순창, 남원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예부터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하서가 교분을 나누는 영남 인물들이 매우 많지만 호남과 가까운 영우嶺右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서와 교류했던 인적관계망을 조사연구하려고 한다. 하서 김인후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아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서집 시문에 대한 세세한 기초적인 연구, 즉 시문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시대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 아래 써졌으며 어떤 제삼의 인물과 관계되었는가에 대한 미시적인 문헌연구가 잘 이루어져야만 하서 학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여도 얻는 것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학자들마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하서의 인적관계망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순창, 남원과 거창,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 인물들과 맺은 인물관계망을 덕계 오건을 중심으로 추적해 보려고 한다.

하서전집은 초간본이 1568년에 편찬되었는데 편찬에 참여한 수많은 인력으로 수집한 자료는 물론이고 미처 수집하지 못한 유문도 상재上粹되지 못했다.

1597년 정유재란에 서원 화재로 문집 중간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가 1686년에 문곡 김수항 선생을 중심으로 문집중간을 도모하여 우암 송시열 선생이 서문을 쓰고 남계 박세채 선생이 편집하여 목판본으로 중간하였다.

1796년 하서 선생의 문묘 승무에 따라 정조의 어명으로 원집과 별집을 합하여 문체별로 하서전집이 새롭게 편찬되었다.

1916년에 후손 김노수의 가장家藏으로 전한 유고와 다른 사람의 문집에서 수집된 하서의 시문과 부록문자를 모아 속편으로 편찬하였다. 1940년에 김노수와 김길중의 노력으로 흥범설시작괘도洪範撰著作掛圖 예설습유도禮說拾遺圖 호당수계록湖堂修禊錄 간집유사록 등이 중간본과 부록으로 간행되었지만 하서의 주저인 서명사천도와 주역 관상편은 수록되지 못했고 문인록도 보완되지 못하였다.

2. 기촌 송순의 인적관계망과 하서

인적관계망에서 사승관계를 기촌 송순, 모재 김안국, 신재 최산두를 들 수 있지만 하서의 경상우도 인적관계망의 뿌리는 기촌 송순이라고 생각된다.

기촌 송순(1493~1582) 선생은 일찍이 놀재 박상과 송세림에게 수학하였다.

문과급제 후 조정에 출사하여 90평생 동안 내외직을 두루 거쳐 실로 광범위한 인적관계망을 형성하였다.

송순의 환로 역정을 보면 괴원槐院, 한원翰苑, 옥당玉堂, 호당湖堂, 은대銀臺, 춘방春坊, 경연經筵, 미원薇垣, 백부柏府, 병조, 이조, 예조 기사耆社, 경조京兆, 의정부와 중국에 사신 가는 직책, 호남 호서, 경상 좌우도 절도사, 개성, 선산, 광주, 나주목사 직책 등 벼슬을 섭렵하여 모두 이목에 드러나서 중요한 직책이 아님이 없었다.

기촌의 교우로는 기재 신광한申光漢, 청송 성수침成守琛, 송재 나세찬羅世纘, 경기도 용문의 양심당 조성, 용문 조옥 형제와 이황李滉, 박우朴祐, 정만중鄭萬鍾, 송세형宋世珩, 홍섬洪暹, 임억령 등이며 문인으로 김인후, 임형수林亨秀, 노진盧禎, 박순, 기대승, 고경명, 정철鄭澈, 임제 등이 있다.

면앙정은 그가 41세 되던 해인 1533년(중종 28) 담양의 제월봉 아래에 세운 정자로서 호남 제일의 가단歌壇을 형성하였

다. 여기에는 임억령, 양산보, 김인후, 고경명, 박순, 임제, 그리고 이항, 소세양(蘇世讓), 윤두수(尹斗壽), 노진 등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며 시 짓기를 즐겼다.

특히 송순 선생이 벼슬에서 물러나 강호생활을 하면서 자연예찬을 주제로 한 작품을 지음으로써 강호가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으며, 「면앙정삼언가」·「면앙정제영(俛仰亭題詠)」 등 수많은 한시(총 505수, 부1편)와 국문시가인 「면앙정가」 9수, 「자상특사황국옥당가(自上特賜黃菊玉堂歌)」·「오류가」 등 단가(시조) 20여 수를 지어 조선 시가문학에 기여한 공이 컸다.

1579년 기묘에 집안에서 대과급제 60년을 기념하는 회방연을 면앙정에서 열었는데 송강 정철, 제봉 고경명, 백호 임제 등 문인을 비롯하여 전라도 방백 수령 백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임금이 호조에 명하여 술을 보내주기까지 하였다.

1540년에 가선대부로 승차하여 경상관찰사에 부임하여 고조 노송당이 손수 쓴 함양 동헌시를 담양 효사당 옛터에 복원하였다.

당시 하서와 동서인 김약묵 두 사람의 은영연(恩榮宴)을 장인 윤임형 진안현감이 베풀어 주기도 하였다.

1552년 임자 윤3월에 송순을 선산도호부사로 발령하여 5월에 부임하니, 영천신잠은 인근 상주목사요 목재 이문건 선생과 유촌 황여헌 등은 정치적 탄압을 함

께 당했던 옛 동료이며 야계 송희규는 급제 동방이다.

또 유학자 용암 박운, 송정 노수성 송당 박영세 사람 모두 같은 선산 고을 사람이며, 태인의 일재 이항은 송당 박영의 문인인데, 일재 이항의 사위가 곧 하서 김인후의 장남 김종룡이다.

용암 박운의 처가는 조선 중종 때 좌의정 병암 김응기, 문암 김진중 등은 인척(姻戚)이며 선산의 낙봉서원 송산서원 등에 배향된 유현이다.

특히 김진중(1497~1557)은 기묘 현량과 출신으로 홍문관 응교를 지냈으며 “학문이 순수하고 충효대절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을사사화에 파직 당하고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순창의 적곡에 유배와 있었다.

하서와는 홍문관 동료로 귀래정과 강천산에서 여러 편의 시를 화답하였다.

3. 덕계 오건(1521~1574)과 인적 관계망

가. 하서문집에 나타난 관계

우선 덕계와 절친인 옥계 노진은 남원 출신으로 구례현감을 지낸 사재당 안처순의 사위이자 하서와 함께 기촌의 문인이다.

일재 이항은 영남의 송당 박영의 문인

이며 백인걸이 남명 조식에 비견하는 학
덕을 칭송하는 인물로 하서와 인척姻戚이
며 옥계와 덕계는 그의 문인이다.

하서의 사위인 고암 양자징은 소쇄처사
양산보의 아들로 광주목사를 지낸 거창출
신 갈천 임훈 선생의 추천으로 거창현감
을 지내면서 이황 조식 노진등과 교류하
였다.

하서와 교류한 청년 이후백 또한 거창
연고로 옥계 노진과 문우이며 안치순과
혼맥으로 사척査戚이다.

나. 덕계와 직간접 관련 시문 초抄

玉峯詩集中 / 詩 ○ 五言律

贈吳御史子剛 名健

幸遇清明世。常羞猗儻詩。民生一何罪。天
意儘難知°

증오어사자강贈吳御史子剛

행우청명세幸遇清明世 : 다행히 맑고 밝
은 세상을 만났으니 상수의나시常羞猗儻詩
: 항상 공손한 시를 읊어도 부끄럽네. 민
생일하죄民生一何罪 : 백성의 생계가 혹시
무슨 죄일런가 천의진난지天意儘難知 : 하
늘의 뜻은 모두 알기 어렵구려.

北闕憂方切。南州歲屢飢。監門堪獻畫。

驄馬莫徒馳

대궐의 지금 절박한 걱정은 호남이 자
주 흉년들어 굶주림이네. 감영에 진상품
도 살펴보고

어사는 총마 타고 스치지만 마소

(주 :1570년 이전에는 1560년부터 근
10년을 서울에서 보낸 감사가 부임하였고
어사 오건이 다녀간 뒤 1571년 4월 미암
유희춘이 감사로 부임하여 10월까지 척결
하고 대사헌으로 영전함)

玉峯詩集 七言律

挽玉溪盧先生禎

一生親養無他事°

한평생을 양친 봉양 다른 일은 없으면서
到底鴻恩極此情°

필경에는 크신 은혜 이 실정 다 아셨기로
泣血三年餘瘦骨°

피눈물의 삼년 동안 야윈 뼈만 남은채로
哀臨千里獨丹誠°

슬픔에도 천 리 가서 홀로 충성 다했을 뿐
望歸台鼎身何與°

정승 여론 돌아가도 '자신 관계없다.' 하며
病隔鄉關夢屢驚°

고향 떠나 병중 꿈만 자주 놀라시더니만
旌纓依依出江漢°

명정(銘旌) 운불삼(雲黻纓) 안타깝게 한
강 벗어 떠나가니

山河非復舊精英°

이 산하는 이제 다시 옛적 정기 아니구나
瘦骨°一作白首

靑蓮先生集一 / 五言絕句

贈盧玉溪 禎

四十已云老。百年能幾何。官堂春雨夜。把酒看梅花。

이제 겨우 사십인데 벌써 늙었다 하면 백년세월을 어찌할 것인가?

관가에 봄비 오는 밤 술잔잡고 매화만 바라보네.

- 한국고전번역원,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2005

靑蓮1520~1578 先生集一 / 七言絕句

제 하서시후題河西詩後

江南嗜酒謫仙人。眞契長參夢寐親。咳唾偶收瀟灑句。世間珠玉摠非珍

술 즐기는 강남의 신선인가? 진실한 사귀는 꿈속조차 찾아드네

우연히 거둔 말씀 깨끗한 시구는 세간의 좋은 글귀는 모두가 보배가 아닌 듯.

靑蓮先生集一 / 七言絕句

贈永思亭 安處士 順

帶方南畔足江山。過客恩恩跡未還。獨立沙頭延佇久。白鷗無侶古磯閑。

남원 남쪽은 아름다운 강산인데 . 충충히 떠난 나그네 돌아올 기약도 없네

모래밭에서 우두커니 기다려도 외로운

갈매기 한가히 강물만 지켜보네

次盧玉溪溪亭韻

緣雲登絕磴。脫險下中流。邑老能誇酒。山僧解刺舟

구름따라 절벽길 올라와 험한 곳 벗어나서 중류로 내려가니

읍내 노인 술맛 좋다고 자랑하고 산승도 노젓는 법 깨쳤네.

林香花沒岸。沙白月迷洲。不盡沿洄興。丁丞護縮頭。

수풀향기 그윽한 언덕에 하얀 모래밭 달빛 희미한 물가에

벉놀이 흥취 다하지 않았는데 대감 만나 부질없이 움츠려드네.

靑蓮先生集一 / 七言律詩

挽盧玉溪子膺

德宇淵亭量海渾。妙齡聞道志彌敦。儒傳自是明誠事。時論宜居鼎軸尊。

깊은 연못같은 그대의 덕우 가림 없는 큰 도량 젊을 때 도를 깨우쳐 더욱 돈독하네.

선비전통 원래부터 명덕 성의 하는 일이오. 시론은 마땅히 대궐 존경하려는 이 야길세.

毀極三年終痼疾。訃承長樂更哀奔。邦家殄瘁丁今日。童稚情親不暇言。

궁전 안은 삼년에 슬픔 지나쳐서 고질 되니 부고 받고 다시 슬픔 솟으니 온 나라

목숨 바쳐 슬픔 다하는 오늘일세 어린아
이 친인척 정담이야 말할 틈도 없네.

다. 덕계의 문집 부록 연보에 의하면 성주 향교의 교관 재직시 하서 선생께서 1560년 정월 서세후 1565년 45세에 기정량(광곡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방문하였고, 1570년 8월에 어사로 재해 조사를 다시 하라는 명을 받고 경차관이 되어 호남의 태인과 진산, 순천, 돌산을 순행하면서 태인의 일재 이항 선생을 방문하고 그 외 호남의 여러 문우를 만난 사실이 옥봉 백광훈의 문집에 “증 오어사 자강 명건 贈 吳御史子剛名建”의 시가 있는데, 옥봉은 하서집 초간본 자료 수집 시 월계 조희문과 김계의 명 종호金季義 名 從虎로 하서 선생(장남)과 함께 자료수집 차 연락이 있어서 방문하였으리라 추정된다.

백광훈(생년 1537년 중종32~몰년 1582년 선조15)은 본관 수원, 장흥 안양 기산 출신 해남 옥천 거주. 자字 창경彰卿, 호는 옥봉玉峯. 아버지는 백세인白世仁이며, 어머니는 광산김씨 침정 김광통金廣通의 딸이다. 형인 백광안白光顔과 관서별곡의 저자인 기봉 백광홍白光弘 및 종제 백광성白光城 등 한 집안 4형제가 모두 문장으로 칭송을 받았다. 박순朴淳 이항李恒의 문인으로 13세 되던 해인 1549년(명종 4)에 상경하여 양응정梁應鼎·노수신盧守愼 등에서 수학하였다. 삼당시인三唐詩人의 한

사람이다. 글씨를 잘 썼고 면양정 송순이 선산부사 재임시 하서문집간행을 도왔다. 또한 그의 시는 천기天機로 이루어진 것이라 평하였다. 백광훈은 이산해李山海·최립崔崧 등과 더불어 팔문장八文章의 칭호를 들었다. 글씨에도 일가를 이루어서 영화체永和體에 빼어나 필원록에 올라 있다. 사후 1590년(선조 23) 강진康津의 서봉서원瑞峰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옥봉집玉峯集』이 있다. 현재 그의 유묵遺墨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1981년 유물관이 건립되었다.

4. 덕계 오건의 약전

덕계 오건은 하서 선생보다 11년 년하로 을사 사화 이후 상접의 기회가 없으리라 추정되지만 그가 1551년 진사시 초시에, 이듬해 진사시 복시에 2등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공부하였는데, 사대부 가운데 경술經術에 뛰어난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 강마講磨하여 깊이 인정을 받았으니 하서 선생과 교유가 있었던 옥계 노진(1518~1578) 고봉 기대승(1527~1572) 일재 이항(1499~1576) 갈천 임훈(1500~1584) 퇴계 이황(1500~1570) 등과 종횡으로 관계가 깊다.

특히 옥계 노진과 덕계는 세살 차의 나이로 덕계의 나이 21살부터 종유하여 학

문적 보익이 적지 않았다.

옥계는 일제 이항을 비롯하여 구례현감 사재당 안치순과의 관계와, 정암 조광조와 정민공 안당과 관계는 출처로 보아 신진사류의 우호세력일 뿐 아니라 옥계의 문집에 해서 선생의 만시로 미루어 보아도 관계망에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다.

특히 하서집 초간본 편찬 시 덕계(1521~1574)는 아들 김종호를 비롯하여 유문수집과정에서 노적盧適 변성온卞成溫 등과 관계로 보아 1568년 1차 유문수집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덕계 선생은 당시 함양을 떠나 성주향교 교수 재직과 남명과 퇴계 문하에서 학문에 정진하는 과정에 있고 정유재란의 영향으로 별집에도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덕계집德溪集』의 저자 덕계德溪 오건吳健은 조선 중기의 전형적인 선비 출신의 관료로, 배운 바를 실천한 관료로 알려진 인물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많은 선비 출신의 관료가 있었지만, 자신이 배운 바를 우직할 정도로 힘써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어려서 부친으로부터 배운 가학家學의 바탕 위에서, 당시의 대학자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혀 남명의 대표적인 제자가 되었다. 그 뒤 다시 퇴계退溪 이항李滉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혀 남명과 퇴계의 장점을 두루 흡수하여 갖추었다.

1572년(선조5) 남명이 서거한 뒤, 남명 문하의 장석丈席의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남명이 서거한 지 겨우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남명의 뒤를 계승하여 남명학파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가 남긴 『덕계집』은 문집 8권 4책, 연보 2권 1책, 보유補遺 신도비명神道碑銘을 합쳐 모두 5책으로 되어 있다.

5. 덕계의 전기적傳記的 고찰

1) 가계와 생애

덕계德溪 오건吳健은 1521년(중종16) 경상도慶尙道 산음현山陰縣 지금의 산청군山淸郡 덕천리德川里에서 태어났다. 자는 자강子強, 덕계는 그의 호,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시조는 오광휘吳光輝로 고려 때 좌복야 상장군左僕射上將軍을 지냈다. 그 이후 7, 8대에 걸쳐 벼슬이 계속 이어졌다.

덕계의 5대조 사온서 직장司醞署直長 오인언吳仁彦이 거창현居昌縣에서 산음현 석답촌石畓村으로 옮겨 왔다. 증조부 오종은吳宗闇이 다시 덕천리로 옮겨 와 자리 잡았다. 조부 오식吳軾은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다.

부친 오세기吳世紀는 행실과 문장이 뛰어났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다. 모친 팔거도씨八莒都氏는 증산 훈도龜山訓導를 지낸 도영강都永康의 딸이다. 부녀자의 범절에

매우 밝았으며, 덕을 베풀고 자식을 훌륭히 길렀으니, 진실로 근본이 있었다.

덕계는 어려서부터 단중端重하고 총명하였다. 6, 7세 때부터 부친에게 글을 배웠는데,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외우고 익히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놀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8세가 되자 벌써 학자다운 모습이 갖추어졌다. 문장의 뜻에 의문이 있거나 모르는 곳에서는 반드시 끝까지 의문을 파헤치고 자세히 탐구하여 의심이 사라진 이후에야 그만두었다.

11세 때 부친상을 당했다. 부친의 병세가 위급해지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늘에 기도하며 여러 번 머리를 조아렸다. 거상居喪하면서 매우 슬피 울부짖어 보고 듣는 이를 감동케 하였다. 14세와 16세 때 잇달아 조부모의 승중상承重喪을 입었는데, 모두 예법제도에 들어맞아 어른보다 못하지 않았다. 24세 때 모친상을 당했는데 죽을 마시고 피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상중에도 부친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하고 독실하게 공부하여, 『중용中庸』을 천 번 읽고 사색하였다.

18세 때 조부 상을 마치고 단성현丹城縣에 있는 정수암淨水菴에 들어가 글을 읽었다. 이때부터 전후 10여 년 동안 문을 닫고 바르게 앉아 쉬지 않고 글을 읽었다. 매일 밤 『중용』을 한두 번씩 외웠는데, 비록 다른 책을 읽거나 급박할 때도 항상 이

렇게 하였다. 절의 승려와 한마디 말도 나눈 적이 없었다.

19세 때 스스로 ‘궁벽한 고을에서 스스로 터득한 공부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구졸재九拙齋 양희梁喜와 함께 경서 뜻의 의심스러운 것을 토론하였다.

21세 때 옥계玉溪 노진盧禛이, 덕계가 경서를 궁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한번 만나 보고자 하여 찾아왔는데, 만나자 바로 오랜 친구처럼 경도되어 논변을 한참 동안 하였다.

25세 때 계조모상繼祖母喪을 당했는데 예법에 따라 상을 집행하며, 조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다. 전후로 다섯 번의 상을 당하였는데 스스로 정성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명종明宗이 승하하였을 때는 상이 끝날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았다. 1년이 지난 후 집안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그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권했으나 끝까지 먹지 않았다. 그 충성과 효성, 독실함과 중후함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아마도 특별히 넉넉하였던 것 같다.

1548년(명종3) 진사進士 이광李光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한강寒岡 정구鄭述의 부친과 종동서 간이 되었다.

1551년 진사 초시에 합격했다. 이해 처음으로 삼가현三嘉縣 토동兔洞 뇌룡사雷龍畵에서 강학하고 있던 남명南冥을 뵈었는데, 흥기한 바가 많았다.

1552년 진사시에 2등으로 합격하였다. 그 뒤 성균관에서 공부하였는데, 사대부 가운데 경술經術에 뛰어난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 강마講磨하여 깊이 인정을 받았다.

(이때 하서와 교유 추정)

1558년 문과에 급제하여 1559년 권지성균관 학유權知成均館學諭가 되었다가 곧 성주 훈도星州訓導로 나갔다. 부임해서 성주의 유생들을 뽑아서 네 등급으로 나누어 가르쳤다. 이때 한강 정구는 소년이었는 데, 덕계를 따라 배웠다.

당시 성주 목사는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이었는데, 뜻이 같고 기질이 서로 맞아 주자서朱子書를 함께 토론하였다. 황준량은 퇴계 이황의 제자였다. 덕계는 그를 통해서 퇴계를 알게 되어 나중에 퇴계의 문하에 들어가 훈도되어 득력得力한 바가 더욱 많았다.

1562년 병으로 성주 훈도를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뒤에도 금계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심경心經』과 『계몽啓蒙』의 의의疑義를 질문하였다.

1563년 43세 때 덕계는 도산陶山으로 가서 퇴계를 만나 뵈고 주자서의 가르침을 들었다. 그리고 『심경』과 『근사록近思錄』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뒤 서신으로 『연평답문延平答問』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다.

1564년(명종19) 성균관 학유成均館學諭에 제수되었는데, 이때부터 다시 조정에 나아가서 벼슬했다. 성균관의 학정學正·학록學錄이 되어 중학中學을 관장하였다. 날마다 학생들을 모아서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가르쳤다. 공부하는 순서에 맞게 가르치고 끌어 주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덕계가 서울에서 벼슬하고 있는 동안 그의 학문적 수준을 듣고, 그 당시 이름난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자서, 『역전易傳』 등을 질문하기도 하고, 혹은 『심경心經』, 『근사록』, 『중용』과 『대학』을 토론하였다. 이때 덕계는 관직은 낮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것이 이러하였다.

1565년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총애를 받던 요승妖僧 보우普雨를 목 베라는 상소문을 지었다.

1567년(명종22) 이후로 항상 시종侍從의 반열에 있었다. 그가 역임한 관직을 살펴보면, 사간원 정언 여섯 번, 예조 좌랑 네 번, 예조 정랑 한 번, 병조 좌랑 네 번, 호조 좌랑 한 번, 공조 좌랑 두 번, 이조 좌랑 한 번, 이조 정랑 세 번,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 세 번,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한 번, 사간원 헌납 한 번, 사헌부 지평 한 번, 홍문관 교리 한 번, 홍문관 부응교 한 번, 의정부 검상 한 번, 의정부 사인이 세 번이었다. 홍문관에 재임할 때는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하였다.

1568년 선조宣祖가 즉위하자, 덕계는 학문에 힘쓰고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라는 상소를 했다. 퇴계를 상례常例에 따르지 말고 접견하라고 선조에게 건의하였다.

1570년(선조3) 8월 어사 겸 재상경차관 御史兼災傷敬差官에 임명되어 호남湖南 지방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서, 진산군 珍山郡(지금 충남 금산)의 전부田賦를 감면해 줄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태인현泰仁縣으로 가서 일재一齋 이항李恒을 만나 뵈었다. 서울로 돌아와 남쪽 지방의 세금 포탈, 군역 기피 등의 폐단을 아뢰었다. 12월에는 퇴계의 부고를 듣고 곡했다.

1571년 덕계는, 선조가 퇴계 영전에 내리는 사제문賜祭文을 지어 바쳤다. 또 자신이 퇴계에게 드리는 만사挽詞를 지었다. 7월에는 선조가 구암龜巖 이정李楨에게 내리는 사제문을 지어 바쳤다.

1572년 병으로 이조 정랑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때 조정에는 당파간 서로 화합이 되지 않는 과격한 논의가 점점 일어났다. 덕계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벼슬을 버리게 되었다. 그 당시의 명사들이 모두 한강가에 나와 전별연을 베풀어 주었다.

고향에 돌아와 작은 집을 짓고 물을 끌어 들여 연못을 만들고 연못에 연꽃을 심고 물고기를 길렀다. 연못가에 소나무를 심고 국화를 심었으며, 두류산頭流山의 첩

첩이 쌓인 봉우리와 경호강鏡湖江의 천이랑 맑은 물굽이를 일상에서 늘 마주하고 아침저녁으로 감상하였다. 다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을 하면서 평생을 보낼 계획을 했다.

덕계가 고향에 정착하니 따라 배우는 유생들이 많이 몰려들어 그들과 서로 학문을 익히고 토론하였다. 선조의 소명召命이 계속 내려왔으나 병을 핑계 대고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에 내린 벼슬은 사헌부 장령 한 번, 집의 세 번, 의정부 검상 한 번, 사인舍人 여섯 번, 홍문관 전한 두 번, 응교, 성균관 사성 두 번, 직강直講, 사예司藝, 장악원 정, 종부시 정宗簿寺正이었다. 1년 남짓한 기간에 20번이나 관직에 제수했으나, 선조가 얼마나 간절하게 덕계를 필요로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덕계는 당쟁의 조짐이 이는 조정 관원들의 태도를 보고 출사出仕를 굳게 거절하였다. 이는 스승 남명이 출처대절出處大節을 극도로 중시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덕계가 2월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남명이 2월에 서거하였다. 4월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남명의 장례를 치렀다. 덕계는 남명의 서거를 애도하는 만사挽詞와 제문을 지었다.

1574년(선조7) 3월에 옥계玉溪 노진盧禎과 함께 함양咸陽 청야사淸野寺에서 주자서朱子書를 강론하였다.

7월 7일에 병을 얻어 24일 집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 54세였다. 고을 사람들이 목 놓아 울고 사림士林들이 서로 조문하였으며, 조정의 관료들도 놀라며 애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덕계의 병이 위독해지자, 한강寒岡 정구鄭述 등이, 처음부터 끝까지 간병하였고, 옥계는 날마다 자제들을 보내어 문병했고, 산음 현감 이원상李元常은 아침 저녁으로 와서 문안했다. 경상 감사도 의원을 보내어 약을 조제하도록 했다.

한양漢陽에 있던 동료인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 약포藥圃 정탁鄭琢, 청강淸江 이제신李濟臣,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서천西川 정곤수鄭崑壽 등 수십 명이 약값으로 각자 면포綿布를 내어 사람과 말을 고용해 한양의 의원을 보내 병을 진맥하고 약을 쓰게 했다. 그러나 그 의원이 도착하기 전에 덕계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덕계가 그 당시 사류士類들의 중망重望을 얼마나 많이 입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10월 1일 선영의 남쪽에 안장하였다. 당시 월정 윤근수가 경상 감사였는데, 산음 현감과 함께 장례를 후하게 도왔다.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가 윤근수의 후임 감사로 와서 덕계의 비석을 만들었으나, 미처 세우지는 못하고 묘 앞에 묻어 놓았다.

1606년(선조39) 제자 한강寒岡이 여러

선비들과 함께 산음山陰 읍치邑治 북쪽 10리 되는 서계西溪 가에 서원을 세웠다. 1624년(인조2)에 위패를 봉안했고, 1677년(숙종3)에 사액賜額을 받았다. 그러나 덕계는 사후 증직贈職이나 시호諡號를 받지 못하였다. 그 인물의 비중에 비해서 관직이 낮았으므로, 후세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고, 위상도 높지 못했다.

2) 사우관계師友關係와 성학成學과정

덕계는 남명南冥 조식曹植과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덕계가 남명을 처음 만난 것은 31세 때였고, 퇴계를 처음 만난 것은 43세 때였다. 남명이나 퇴계에게 의문나는 것을 질문하고 학문의 바른 방향을 제시받은 것이지, 구체적인 학문의 체제는 그 이전에 다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퇴계와 남명에 수학하는 학문적 개방성이 추영追榮이 미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다.

6세 때 부친에게 『대학』, 『논어』 등의 책을 읽었는데, 11세 때 아버지가 별세하였다. 부친이 별세하면서 “네가 어디서 학문을 하여 사람이 되겠는가.”라고 하여, 덕계가 장차 학문을 이룰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14세 때 조모상을 당하여 상중에 있었는데, 의지할 데가 없어 배움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부친이 임종 때 걱정하던 말을 매번 생각하면서 구슬피 탄식하

였으나, 곤궁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스승을 찾아갈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집안의 책을 찾다가 낡은 『중용』 한 책을 얻게 되었는데, 단정히 앉아서 그 소주小註까지도 다 읽었다. 밤낮없이 천 번을 읽으니 구두句讀가 어느덧 익숙해졌다. 처음에 글의 의미를 찾아낼 적에는, 한 자 한 구절에서 실마리를 찾아 분석했는데 시간을 들여 외우고 생각하니 캄캄하던 것이 열리고 의심되던 것이 사라져 마침내 환하게 드러나서 훤히 관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방법을 『논어』나 『맹자』 등 다른 책에다 적용하니, 단칼에 대나무가 갈라지듯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14세 때 진사인 외숙 도양필都良弼에게 『주역』을 배웠다. 이때부터 여러 경사經史나 제자서諸子書를 모두 스스로 완숙하게 이해하였으며, 침잠하여 연구하니 거침없이 진보하였다.

18세 때 단성현丹城縣 척지산尺旨山 정수암淨水菴에 들어가 공부한 것이 전후 10여 년인데, 문을 닫아걸고 단정히 앉아 글을 읽었다. 낮에는 무릎을 움직인 적이 없고 밤에는 편안히 베개를 베고 잔 적이 없었다. 어떤 때는 낮은 목소리로 읽고 외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요히 묵상하기도 했는데, 절의 승려와 말 한 마디도 나누지 않은 것이 몇 달간 계속되기도 하였다.

진사 초시에 합격한 31세 때 삼가현三嘉

縣 토동兔洞 뇌룡사雷龍舍로 남명을 찾아뵈었다. 덕계는 남명을 따라 배우면서 발전한 바가 많았다.

32세 때 진사 회시에 합격하였고, 36세 때 성균관에서 공부하면서 경학에 조예가 있는 사대부들과 서로 어울려 강마講磨했는데, 덕계는 매우 추중推重을 받았다.

39세 때 성주 훈도星州訓導로 부임하여 성주 목사로 재직하던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을 만났다. 금계는 퇴계의 제자로 학문적으로 퇴계와 많은 강론을 하여 왔다. 덕계는 금계와 뜻과 기질이 맞아 같이 주자서를 토론하였다. 주희의 글 가운데 있는 ‘주경궁리主敬窮理’, ‘함양涵養’, ‘미발전기상未發前氣像’ 등의 말을 더욱 깊이 음미하여 성현이 전한 뜻과 맞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덕계 자신이 지난날 힘써 공부했던 것이 오히려 ‘구이지학口耳之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점을 절감하면서, 의심나면 생각하지 않음이 없고 생각하면 터득하지 않음이 없었다. 터득하지 못하면 침식을 잇기에 이르렀으며, 터득하면 조심스럽게 삼가며 잃을까 두려워하였다.

금계가 퇴계에게 서신을 올리면서 ‘오견吳健이라는 사람과 함께 주자서를 강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자, 퇴계가 금계에게 주는 답장에서 “들으니 오자강吳子強이 나를 찾아오려는 뜻이 있다 하는데, 매우 기다려지는구려. 그 사람이 능히 이렇게 분발한다니, 정말 한 번 만나 나의

막히고 인색함을 열었으면 하는데, 언젠가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소.”라고 하였다. 퇴계가 덕계에게 대단히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덕계는 43세 때 드디어 도산陶山으로 가서 퇴계를 뵈었다. 퇴계 문하에 들어가 훈도를 받아 개발되고 힘을 얻은 것이 더욱 많았다. 이때 주자서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또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덕계를 두고, 퇴계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강子強은 자성資性이 박실朴實한 데다 또 우리 유학에 힘쓰는 것이 간절하고 독실하니, 정말 유익한 벗이오. 귀하게 여길 바는 전에 금계錦溪와 서로 논의하면서 먼저 배웠던 학설에 얽매이지 않고 곧 앞의 잘못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믿는 것이오. 이 정도에 이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바요. 그러나 나의 학설에 틀린 곳이 있으면 역시 억지로 동의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한 바가 적지 않았소.”, “『중용』과 『대학』에 대한 자강子強의 공부는 매우 정심精深하니, 이는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고요한 가운데서 체인體認하고 연구하여 오래 축적한 공력功力이 아니면, 이런 경지에 쉽게 이를 수 없을 것이오.”라고 했으니, 퇴계가 덕계의 학문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퇴계를 만난 이후로 덕계는 식견이 더욱 진보하였고 학문도 더욱 조예가 깊어졌다. 지난날의 규모

와 비교해 보면 다시 한 단계 품격이 높아진 것이다.

덕계는 퇴계에게 『연평답문延平答問』의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문목問目을 보냈고, 퇴계는 상세히 답변하였다. 이 문답은 「연평답문질의延平答問質疑」란 제목으로 『덕계집』과 『퇴계집』에 다 실려 있다.

남계서원濼溪書院에서 옥계玉溪 노진盧禎을 만나 동강 형제와 함께 강론하였다. 덕계는 남계서원에 머무르며 옥계, 개암介庵 강익姜翼과 『연평답문延平答問』 및 주자서朱子書를 강론하였다.

46세 되던 해 1월 남명이 서신을 보내 덕계를 초청했으므로, 지곡사로 가서 남명을 만났다. 옥계와 동강도 참석하였고, 유림들이 많이 모였다. 5일 동안 머물며 남명의 가르침을 받다가 돌아왔다. 남명은 덕계가 서계西溪에 집을 지으려는 의도를 알고 직접 와서 둘러봤다.

51세 때인 12월에 퇴계의 부고를 듣다.

덕계는 남명에게 먼저 제자로 입문하여 자주 만나고 오래 배웠지만, 퇴계의 학덕을 흠모하는 마음도 대단히 간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조宣祖가 퇴계의 영전에 사제賜祭할 때 선조를 대신해서 덕계가 사제문賜祭文을 지었는데, 그 글 속에서 덕계는 조선 유학에 있어서 퇴계의 학문적 공적·위상·영향 등을 잘 요약하였다.

程朱格言 정자·주자의 바른 말씀
과
鄒魯微旨 공자·맹자의 정미精微
한 뜻을
研精覃思 정밀하게 연구하고 깊
이 생각하여
自表究裏 표면으로부터 속뜻까
지 궁구하였소
養深積厚 함양한 것이 깊고 쌓은
것이 두터워
充然自得 충실하게 스스로 터득
하였소
擔荷大事 큰 일을 맡았나니
遠紹絕學 끊어진 학문을 멀리서
이었던오
雖未大施 비록 크게 펼치지는 못
하였지만
表儀家國 국가에 법도가 되었다
오

- 「사제판부사 이황 문(賜祭判府事李滉文)」

정자·주자는 물론이고 공자·맹자의 학문을 정심精深하게 연구하여, 겉으로 드러난 뜻과 속뜻까지 다 궁구하여 주자 이후 끊어진 학문을 다시 이었다고 하였으니, 퇴계를 주희의 학문적 계승자로 평가한 것이다. 덕계가 품정品定한 퇴계의 학자로서의 위상이다.

2년 뒤 남명이 서거했을 때 덕계는 만사 두 수를 이렇게 지었다.

喬岳擎天柱 하늘을 받치는 태산
같은 기둥
長河緯地章 황하처럼 천하에 두
루 통하는 법도
浩然充宇宙 호연한 기상은 우주
에 충만했고
明了徹毫芒 분명한 생각은 세밀
한 것까지 꿰뚫었습
니다
未作調羹傅 나라 정사를 도우는
정승이 되지는 못했
지만
寧從入海裏 어찌 세상 버리고
떠나는 은자가 되겠
습니까
斯民已無祿 우리 백성들은 이미
복이 없나니
天意又茫茫 하늘의 뜻은 또 아
득하기만 하군요

峻節人爭仰 준엄한 절조는 사람
들이 다투어 우러렀
지만
奇功衆莫窺 특별한 공부는 못사
람들이 엿보지 못했
습니다
臯比撤來勇 스승 자리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 가졌고
泥塑靜中思 불상처럼 미동도 없
고 고요하게 사색하

妙契天機熟
 長嗟士學非
 家庭灑掃訓
 眞得古人規

셧습니다
 신묘하게 깨달아 천
 기에 정통하였고
 선비들의 그릇된 학
 문 길이 탄식하셧습
 니다
 집안의 일상생활에
 대한 가르침도
 정말로 옛사람의 법
 도를 얻었습니다

- 「만남명선생(晩南冥先生)」

덕계는 남명과 퇴계를 스승으로 모시고
 서 학문을 이루었지만, 그 밖에도 어릴 적
 의 스승인 외숙 도양필(都良弼)이 있었다.

스승을 제외하고 그에게 가장 많은 영
 향을 준 벗으로는 가까운 곳에 살았고, 동
 시대에 사환(仕宦)을 했던 옥계(玉溪) 노진(盧
 禕)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개암(介庵) 강익(姜
 翼), 각재(覺齋) 하항(河沆), 약포(藥圃) 정탁(鄭琢),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 낙천(洛川) 배신(裨紳)
 등인데, 대부분이 남명 문하의 동문들이
 다. 퇴계의 제자로는 월천(月川) 조목(趙穆),
 백담(栢潭) 구봉령(具鳳齡), 팔곡(八谷) 구사맹(具
 思孟) 등과 교류가 친밀하였다.

3) 학문과 사상, 정계에서의 역할

덕계는 젊은 시절 자학(自學)으로 학문적
 기초를 쌓은 뒤 남명과 퇴계의 문하에 나
 아가고 나서 학문이 한 단계 더 발전하였

다. 덕계는 학문을 이론 전개보다는 실천
 을 중시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그의 문
 집에는 이기심(理氣心性)을 논하는 글은
 거의 없다.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수양론
 적인 학문이었다. 그는 학문을 이렇게 생
 각하였다.

학문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물
 의 이치를 궁구하고 경건한 데 입각해서
 생활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옛날 학자 가
 운데 정자(程子) 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 의
 리를 밝히기도 하고, 고금의 인물을 평론
 하여 그 잘잘못을 구별하기도 하고, 사물
 에 접하여 그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을
 판단하기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
 이 곧 이치를 궁구하는 일입니다. 옛날 학
 자 가운데 ‘주일무적(主一無適)’으로 말한 정
 자(程子)가 있고, ‘정제엄숙(整齊嚴肅)’으로 말
 한 정자가 있고, ‘상성성법(常惺惺法)’으로
 말한 사양좌(謝良佐)가 있고, ‘마음을 수렴하
 여 하나의 사물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윤돈(尹焯)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데 입각해서 생활하는 공부입니다. 이 두
 단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없
 았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원을 함양
 하는 것이고, 학문을 하는 데 입문하는 곳
 이며, 천하의 모든 일이 나오는 곳이고,
 치란(治亂)과 흥망이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 「청궁리거경차(請窮理居敬劄)」

덕계는 학문을 크게 궁리窮理와 거경居敬 두 가지로 보았는데, 그 실행하는 방법은 모두 정자程子 등 선유先儒의 설을 따랐다. 이 두 가지는 그 가운데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그러나 덕계 자신의 학문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유들이 내놓은 이론을 체인體認하여 익히려는 것이었다.

덕계는 한미한 가문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학문에 정진하고 과거에 합격하여 진발振發한 인물로 철저하게 현실에 바탕한 실천을 위주로 하였다. 우국연민憂國憐民의 사상이 그의 시문 곳곳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의 고통상을 걱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의 『청간상후재이관조세전講看霜後災以寬租稅箋』에서 이렇게 간언하였다.

신은 앞드려 바라건대, 위로 천시天時를 보고 아래로 백성의 고통을 걱정하여, 심사하여 결정하라는 명령을 특별히 늦추십시오. 이로써 곡식의 징수를 바로잡으시면 겨울에 땅을 갈고 여름에 김을 매어 백성은 곡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윗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덜어서 백성에게 은택을 베푼다면 탄식이 들판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때에 맞춰

처리하는 조치가 적당할 뿐이겠습니까. 또한 나라의 근본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백성들이 재해를 당한 실정을 잘 파악하여 세금 징수를 바로잡으면, 백성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고,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나라의 근본이 튼튼해질 수 있다고 선조宣祖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덕계는 강하게 건의하였다.

『교경기도관찰사김덕룡서教京畿道觀察使金德龍書』를 보면, 그의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농사짓고 누에치는 것은 입고 먹는 것의 근본이니, 장려하고 독촉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교화教化의 근원이니 사람을 키우는 데 의당 그 방법을 다해야 한다. 곤궁한 사람에게 자식처럼 혜택을 베풀어 하소연할 데 없다는 원한이 없게 해야 한다. 한미한 처지에 있는 훌륭한 사람을 드러내어 어진 인재를 버려둔다는 탄식이 없게 해야 한다. 이익을 추구하고 권세에 아부하는 사람은 쫓아낼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힘을 믿고 약자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칠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맑은 지역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신중하고 견고하게 하려고 해야 한다. 무기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견고하고 예리하

게 하려고 해야 한다. 사졸들이 백성들을 침탈하는 우려가 없게 하고, 군대는 기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덕계는 이상적인 이론에 치우친 학자가 아니고, 현실을 아는 실천주의자였다. 그래서 현실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순서를 알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농상農桑에 힘써야 백성들이 먹고살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학교를 일으켜 교화를 펼쳐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곤궁한 사람을 구제하고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세상 도덕윤리를 바로잡아야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되 군인들의 난동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

덕계가 호남 지방에 어사御史로 나가서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국왕에게 아뢴 계사啓辭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근년에는 관례로 정포正布 90필을 주고서 그 군역을 대신 세우니 곤궁한 것이 이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때에 준비하여 보낼 수 없으면 죄과를 신문하여 나무라고 처벌하며, 속전贖錢을 징수하는 것 또한 지독합니다. 백성의 생활이 곤란한 것이 이런 데서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공물貢物의 경우, 서울의 20개 관아 및 혼련원,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과 각 감영監營에 납부하는 것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괴롭고 버티기 어려운 것은 풍저창豐儲倉과 장흥

고長興庫에 바치는 종이·유지油紙·돛자리, 혜민서惠民署에 바치는 애기풀·백복령·당귀, 내섬시內贍寺에 바치는 참기름, 사복시司僕寺에 바치는 말덕석 10개, 의영고義盈庫에 바치는 밀랍, 장원서掌苑署에 바치는 홍시·배[梨]·개암 등의 물품입니다.

도망간 사람의 토지는 아직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백성에게 주고서 그 세금을 받아 냅니다. 저희들은 동분서주하면서 요역繇役에 응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또 어찌 다른 사람의 농지를 경작하여 먹고살 수 있겠습니까. 단지 쉬운 곳을 골라서 개간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버려두고 경작하지 않은 것이 8, 9년, 혹은 5, 6년, 혹은 3, 4년이 됐지만 거기에 미칠 여력이 없습니다. 혹 토지가 없는 사람은 그 땅에 농사지어 먹고살 수 있겠지만, 한 번 몇 마지기를 개간했다 하면, 여러 해 내지 않은 세금을 받드시 그 사람에게 텅터기를 씌우니, 누가 다시 그곳에 밭을 들여놓아 스스로 화를 당하려 하겠습니까. 이것이 황무지가 예전 그대로인 까닭입니다.

…중략…

한 알도 입에 들어갈 것이 없는데 각종 명목의 세금이 있어,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이미 극도에 이르렀으니, 저희들은 무엇에 의지하여 생활하겠습니까.

- 「어사겸재상경차관시계(御史兼災傷敬差官時啓)」

덕계는 어사로 나가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직접 면담하고서 백성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왕에게 상세히 보고하였다. 덕계 자신이 어려서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농민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다. 역대로 많은 어사들이 올린 장계狀啓가 있지만, 덕계의 장계처럼 백성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실상을 보고한 것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덕계처럼 원리원칙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덕계가 하는 일을 두고 심하게 화를 내었다.

이미 6품직에 승진하여 청요직淸要職을 맡아 이조 정랑吏曹正郎이 되어, 공정한 도리를 펼치기에 힘썼다. 사람됨이 순실淳實하고 과감하여 일을 만나면 바로 밀고 나갔지, 돌아가거나 꺾이지 않았다. 그러자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노진盧禎은 덕계와 옛날부터 친분이 있었다. 덕계를 꾸짖어 “자네는 시골에서 출세해, 와서 청요직에까지 이르렀으면 자네한테는 과분한 것이다. 마땅히 몸을 사리고 조심을 해야지 어째서 멋대로 자기 의견을 고집해서 스스로 여러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느냐.”라고 했다. 그래도 덕계는 고치지 않았고, 여러 사람들의 노여움은 더욱 심해졌다. 그때 임금의 뜻도 사류士類들에게 염증을 내었고, 속류俗流들의 세력이 더욱 성해져 갔다. 덕계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권6 1장

덕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이 배운 바대로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다. 그러나 조정 관원들 가운데는 덕계를 이해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선조宣祖도 바른 선비를 싫어하는 기미를 보이자,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덕계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뜻을 펼 수 없으면서 조정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녹만 받아먹겠다는 것이니, 시위소찬尸位素餐일 따름이다. 스승 남명의 출처대절出處大節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그대로 조정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 덕계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이후로 다시는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는 큰 뜻을 가졌지만, 현실은 뜻과 같지 않았던 것이다. 은자는 아니지만 벼슬은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점은 남명이나 퇴계나 해서 선생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덕계도 스승이 갔던 길을 따랐던 것이다.

4) 사림士林들의 덕계德溪에 대한 평가

덕계는 배운 바를 실천에 옮기려고 하여 언론이 강직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많은 동료나 후배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약포藥圃 정탁鄭琢은 이렇게 평했다.

덕계가 시강侍講이 되어 경연에 입시하였는데, 강론講論이 정숙精熟하니 당시에 명망이 아주 높아졌다. 이조의 낭관郎官이 되어서는 인재를 쓰는 것이 구차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바꾸고 바로잡았는데, 판서가 간혹 꺼리는 기색을 보이기는 했으나 역시 감히 화를 내지는 못했다. 대각臺閣에 출입할 때는 그 당시의 소차疏筭가 대부분 그의 손에서 나왔는데, 바른 논의가 곧고 끊는 듯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를 거리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가운데 혹 기뻐하지 않은 자도 많이 있었으나 공은 끝내 변하지 않았다.

- 『덕계집』 권7 10장, 「덕계행장」

덕계는 경연에 입시하여 강의도 잘했고, 이조의 정량이나 좌량을 맡아 공정한 도리를 펼치려고 노력했으며, 사헌부나 사간원에서 올리는 소차를 다 자신이 지었으니, 문장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정에서 자신의 소신을 변치 않은 바른 처신을 하였다고 약포가 칭찬했다.

율곡栗谷 이이李珣는 이렇게 평했다.

오건吳健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는데 늦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왔다. 선비들이 그가 어질다는 것을 대부

분 알고 사관史官에 천거하였으나, 사관은 재능을 시험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오건은 나아가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내가 무엇 때문에 천고千古의 시비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야 하겠소.’라고 하였다. 이조吏曹의 낭관郎官이 되어서는 공정한 도를 넓히기에 힘썼다. 사람됨이 순수하고 착실하며 과감하여 일을 만나면 곧장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건은 뜻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곧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 『율곡전서(栗谷全書)』 권29

「경연일기(經筵日記)」 5장

오건이 돌아가자 사류들이 대부분 애석해하였다. 기필코 다시 등용하고자 하여 잇달아 시종侍從의 직위에 임명하였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오지 않았다. 고향에 가서 산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54장

덕계는 순수하고 착실하며 과감하여 공정한 도리를 넓히기에 힘쓰는 등 바르게 행신行身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는데,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니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였다. 그 뒤 20여 차례에 걸쳐 벼슬로 계속 불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율곡도 매우 아까워하고 있다.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자기 자제들에게 적어 준 글 가운데서 덕계를 남명과 퇴계의 문하에서 가장 우수한 제자로 쳤다. 그러나 일찍 세상을 떠나 제자를 남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다.

덕계德溪 오건吳健이 학행學行 면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두 분 선생의 문하에 모두 나아가 종유從遊하였으나, 일찍 죽는 바람에 후세에 전해지는 바가 없다.

- 『택당별집(澤堂別集)』 권15 7장,

「시아대필(示兒代筆)」

후세의 학자로 『덕계연보』의 발문을 쓴 노주老洲 오희상吳熙常은 덕계에 대해서 포괄적인 평을 남겼다.

이때 덕계는 남쪽 지방에서 일어났다. 깊은 학문과 곧은 지절志節로 조정에서 떨어져 개연히 임금을 요순堯舜처럼 만들고 백성을 요순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경연과 대각臺閣을 출입하면서 나아가서는 훌륭한 말을 다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논의가 분열되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 숨어 도道를 강마講磨하고 뜻을 구했다. 여러 번 불러도 다시 나아가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

- 『덕계선생연보발(德溪先生年譜跋)』

유교의 이상을 실현해서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집념을 갖고 경연과 대각 등에서 소신껏 일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향에 돌아갔다가 다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덕계를 아는 모든 사우들은, 덕계를 순수하고 진실하며 과감하여 배운 바대로 실행하였는데, 조정에서는 공정한 도리를 넓히려 노력하였고, 학문과 문장에도 뛰어났다는 평가를 했다.

그의 문집 제1권은 『연보』이고 제2권은 연보의 부록으로 성암省庵 김효원金孝元 등 사우와 제자 7명의 만사와 입재立齋 노흠盧欽 등 사우 31명의 제문 24편이 실려 있다.

덕계 문집제 8권에는 부록으로 한강寒岡 정구鄭逖 등 사우와 제자 17명이 지은 제문 17편, 옥계玉溪 노진盧禎 등 13명의 만사挽詞 17수가 실려 있어 교유관계를 알 수 있다.

5. 맺는 말

하서 선생은 정암 조광조로부터 이어 받은 지치주의 참된 유학의 이념을 구현코자 유학 경전을 정독하고 연구하여 실천적 성리학으로 도학실현을 추구하신 분입니다.

우주관(宇宙觀)·인성관(人性觀)·수양론(修養論)·경세론(經世論)이 함축된 태극음양론·사단칠정론·인심도심설이 천명과 중화에 집약되었다 하겠습니다.

하서 선생이 서세하고 왜란 특히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동서남북의 당쟁의 와중에 퇴계와 남명과의 학문적 관계가 점차 멀어진 것을 알 수 있으나 하서의 문인들은 그들과 협력하여 서원을 중건하고 문집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이어왔기에 서인노론 사람이 주축이 되었지만 남인계 소론계 사람의 학문과도 어울리는 개방성이 실학과 자강의 절의와 의리 정신의 유교적 덕목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한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거창과 산청 함양지역에서는 광해 이후 북인이 퇴락하고 기축옥사와 관련 최영경을 남명사우에 종향하고 있는 사실과 그 후 남명의 신도비를 세 번이나 개체한 실정, 1728년 무신년 이인좌의 난에 이순신장군의 후손인 경상병사 이봉상이 거창의 동계 정온의 후손 정희량을 참수하여 조정에 수급을 바친 사실이나 1798년 하서 선생 문묘 승무와 관련하여 정파의 호불호가 다를 수 있는 바 1829년에 덕계의 문집 연보를 지은 남인계 풍산인 유심춘(柳尋春, 1762~1834)의 편집 의도에 대하여 얼마 남지 않은 사승관계 참고 자료인들 여하히 취급되었는지 상상한 언급은 생략한다.

그러기에 유교적 지도이념으로 조성된 충과 효를 사승의 학문적 연원관계의 건전한 바탕 위에 조성되었던 과거의 학문 풍토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위기에 요구되는 충과 효가 의리사상의 평가 기준이 되어 왔던 경험을 현재까지 대부분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정유재란에 겪어야 했던 문화재의 손실과 인명 피해와 학문의 침체를 겪어야 했던 실정으로 전쟁의 참화에 이어 당쟁이 치열하였던 근대 서원을 중심으로 각 연원 간 알력이 자유로운 학문적 풍토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인 바,

왜란 호란 일제강점기 한국동란 등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서도 우리 고유의 윤리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은 근래 혼탁한 사회 환경으로 보아 유교적 윤리관으로 “천명과 중화” 사상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로 아직도 유효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서 선생의 혼인관계로 조성된 인간관계나 혼몽재나 필암서원 영귀서원 어암서원 등 사승관계와 호남선유의 인간관계망을 다시 한 번 살피면, 하서 선생의 사우관계, 사승관계 그리고 호남가단 특히 면양정 가단에서 성산가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천명과 중화를 바탕으로 하는 “자연가(自然歌), 도입사수가(悼林士遂歌), 백구가(白鷗歌), 백련초해(百聯抄解)” 등의 국문학 작품 등 훌륭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소

중이 여기는 학문 풍토를 조성토록 인적 관계망을 더욱 착실하게 탐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조대왕이 찬미한 하서 선생의 “경이

직내^{敬以直內}”의 수양 철학은 덕계 오건의 “거경궁리^{居敬窮理}”와 상통하는 유교철학의 바탕임을 침언합니다.

만추단상^{晩秋斷想}

김용해(본회 이사)

추풍이
깔아준
오색의 포도 위로
세월의 수레는
소리 없이
굴러가니
뉘라서
일장춘몽이
덧없다 아니 하리

천지간
한 조각으로
홀연히
태어나서
우로에

생기 받고
담천에
무르익어
순풍에
흘뿌린 흩씨
울울창창
감은^{感恩}이라

심상이 고요하고
육신이 온전하여
노후가

청한^{淸閑}하니
원컨데

종심소욕^{從心所浴}이 불유구^{不踈矩}

로다

하서 사상과 인격의 실질적 계승자 인촌 김성수

인촌 김성수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13대손이다. 인촌은 일본에 유학하여 신학문을 배우기 전 청소년기에 유교사상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인촌은 공선사후(公先私後)와 신의일관(信義一貫)을 좌우명으로 삼아 평생 이를 독실하게 실천하였고, 특히 유교의 천명(天命)사상을 좋아하였는데, 이는 하서 선생이 평생 절의(節義)를 실천하고 천명(天命)과 중화(中和)를 숭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촌은 이런 정신을 본받아 나라를 이끌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언론을 통하여 우리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근대적인 민족기업을 일으켰다.

이로 보아 인촌은 하서 선생의 인격과 사상을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계승한 후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서 선생을 꼭 빼닮은 제2의 하서(河西)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촌 탄생 130주년을 맞아 인촌(仁村)을 불러내는 글을 「하서(河西) 도학(道學)과 문학(文學)」 35호에 실는다.

- 산양회보 편집자 김재수 씀

인촌仁村 선생 이야기

김형석(연세대학교 교수)

셋이 같이하면 반드시 한 사람의 스승이 있다는 옛 교훈이 있다. 비록 단 둘이 걷는다 해도 우리들의 마음 쓰기에 따라서는 같이 가는 사람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의 단 점이 나에게 충고가 될 것이며 그의 좋은 점은 나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스승 위인들을 외국에서 찾아왔다. 역사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스승 위인들이 있었던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으며 또 존경을 바치고 있다. 간디나 슈바이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아이슈타인의 업적 케네디 대통령의 뜻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우리들의 역사를 통하여 전 국민이 존경할 만한 인물의 수는 그리 많지 못한 것같이 생각된다. 적은 것은 아니겠지만 선배들이나 역사가들이 그분들의 뜻을 바르고 값있게 전해주지 못한 것이 그 하나의 원인이 되어 왔는지

도 모른다.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 있다.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는 몇 분의 선배 스승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그들이 길을 잃은 우리들의 지남침이 되며 삶의 갈래길에 부딪혔을 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생활은 얼마나 믿음직스러우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 선한 선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주변과 이웃들 속에서 좋은 분들을 찾아낼 만큼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며 스스로가 보람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만일 우리들의 정신적 소양, 사회생활의 선한 뜻만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웃사람들의 단점보다 장점, 약한 점보다 조금씩이라도 훌륭한 면들을 서로 찾아가며 장려해가는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에 떠

오르는 한 분이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중의 한 분이 인촌 김성수선생이다.

그분은 업적에 비하여 그리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니다. 그이보다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분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만한 지위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다. 잠시 부통령직을 맡은 바는 있었으나 그리 긴 기간의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통하여 그분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지난 1세기 동안 가장 존경받을만한 뜻과 업적을 남긴 이 중의 으뜸 되는 분이 바로 인촌선생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우리 민족 역사를 통하여 언론다운 언론기관이 있었다면 동아일보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동아일보가 그분의 재산과 뜻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의미의 민족적 교육이 있었다면 대학에서는 고려대학, 중등교육에서는 중앙중고등학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이 일인들의 손으로 세워졌으며 연세대가 미국인들의 뜻에 의하여 건설되었다면 고대야말로 강한 민족정신의 집결체였다고 보아 잘못이 아니다. 중앙고보가 어떠한 학교였던가는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인촌선생의 뜻과 재산에 의하여 이

두 교육기관이 자랐다는 것은 누구도 가변이 볼 수 없는 업적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걱정하신 선생은 다시 기업다운 기업을 뜻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을 얻어 경성방직을 창건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 옛날 뜻있는 생산과 경제면에도 큰 뜻을 남기셨던 것이다. 태극성 광목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용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들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하셨다. 많은 인재들을 길렀으며 훌륭한 일꾼들의 뒷받침을 해주었다는 일이다. 그분을 중심 삼거나 그분 밑으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지고도 남는 일이다. 이렇게 선한 뜻과 훌륭한 일들을 남겨준 분을 생각하며 그런 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분의 뜻과 정성이 이렇게도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산을 따진다면 비단 그 분에게 국한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복 받은 행운아라고 말하기도 한다. 친구와 환경이 좋았고 시운時運을 탔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분은 환경을 만들었으며 친구들을 찾아 다닌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활

동기만큼 민족역사의 수난기가 없었으며 처세하기가 곤란스러웠던 때도 없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에게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만은 배워서 좋을 것으로 믿는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정성으로 동아일보를 창간했다. 그러나 곧 동아일보의 사장 책임은 친구였던 송진우 선생에게 맡기셨다. 만일 그분이 사장자리를 원하는 분이였다면 누구도 그분이 사장 될 자격이 없다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일을 위하여 사장직을 친구에게 맡긴 뒤에는 곧 다른 일에 손을 대셨다. 한 가지 일이 정리됨을 보자 다시 다른 친구에게 그 책임을 맡기고 자기는 다시 새로운 일에 뜻을 두셨다. 교육 언론계의 일들이 정리되자 곧 기업계를 도우셨고 해방과 더불어 정치운동에 뜻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과 뜻을 잘 아는 이들은 그의 정치생활이 결코 자신의 영광이나 부귀 명성을 위한 바가 아니었음을 곧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언제나 조국과 백성을 위한 뜻으로 일관하였다.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피선되었을 때의 일이다. 일반 여론은 인촌 선생이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다. 미국 측의 생각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졌던 것 같다.

그 때 나는 우연히 계산 밑에서 인촌 선생을 뵈었다. 기자들을 피하여 산책을 올라오셨던 것이다. 누군가가 “선생님 요사이 국무총리가 되신다는 여론이 높던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꺼냈다.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인촌은 “왜 송진우 선생께서 먼저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그분이 살아만 계신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분을 국무총리로 모셔야겠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대답하는 인촌의 두 눈에는 눈물이 괴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인촌 선생의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언제나 보다 유능한 분을 뽑아 윗자리로 모시려 하는 생각, 소위 감투는 남에게 씌우고 뒤에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해 나가는 뜻, 이 뜻이 다름 아닌 인촌의 정신이었고 그 뜻 때문에 그분은 보다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 뜻은 어디서 왔는가? 진정한 애국심, 나는 민족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는, 먼저 조국 그리고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남을 헐고라도 높은 지위를 탐내는 많은 정치가들, 보다 유능한 사람을 떨구고라도 자기의 지위만 보장되면 그 뿐이라는 대개의 지도자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귀한 정신이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정신을 가져야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소개하기로 하자. 6·25 때 일이다. 부산으로 피란 갔던 우리 몇 선생들은 앞날이 아득한 생활들을 걱정한 나머지 선생 한 사람을 진해로 보내 인촌 선생에게 괴로운 심정이라도 여쭙어보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내가 그 대표로 뽑혔다. 인촌 선생은 우리들이 봉직하고 있는 중앙학교의 설립자였으며 나는 그때까지 선생을 직접 뵈은 바도 없는 이름없는 한 뜻내기 교사에 불과했다.

내가 진해에 머물고 계시는 선생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다. 인사를 드리고 마음으로부터 민망스러운 몇 선생들의 뜻을 전해 드렸다. 선생은 “그저 참 안됐습니다. 여러 기관의 분들이 다 어려우신 모양인데 특히 이런 때는 선생님들이 더 고생스러우시겠습니다. 어떻게 힘이 미치는 대로 해보도록 하십시다”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분에 넘치는 어려움을 드렸는가 싶어 무척 송구스러웠다.

그날 밤을 같이 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조반을 끝낸 뒤 선생은 “좀 생각해 보았는데 우선 내 통장에 48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3만 원만 남기고 찾아다 드릴 테니 몇 선생님들이 어려우신대로 지나도록 해 보십시다. 전쟁이 쉬 회복되면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얼마 후에 다시 한 번 의논해보십시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45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받고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선생은 나에게 영수증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저 맡아서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 뿐이었다. 그 때 선생은 내 이름조차도 기억 못하고 계신 때였다.

대문 밖으로 나오면서 인사를 드리려 했다. 그때 선생은 잊었다가 생각이 난 듯이 “아이 참, 김 선생, 부산 가시면 서면을 지나시게 되지요? 거기 내 큰아들 집이 있는데 내 아내가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 다다미 껌질을 여나문 장사오라고 부탁했는데 새것을 사면 한 장에 200원이고 낡은 것을 뒤집은 것은 한 장에 150원 한답니다. 새것보다는 낡은 것을 사오도록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그렇게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썩 죄송스러운 생각이 떠올랐다. 당신의 개인 생활은 저렇게 절약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큰 돈을 아끼지 않는 뜻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역시 누구보다도 지성으로 사시는 분이었다.

인간 자본으로서의 인촌의 모습과 친일에 대한 시비 문제

백완기(행정학 박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 인간 자본으로서의 인촌의 모습

인촌은 우리 민족의 근대화 작업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교육, 산업, 언론, 문화, 정치 등의 분야에서 근대화의 초석을 구축하였다. 인촌의 찬연한 업적은 순탄한 행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제침략의 험난한 질곡 속에서 이루어졌다. 인촌의 삶은 처음부터 인고와 고뇌 및 수난의 역정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일제 치하의 서슬이 퍼런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국력배양이라는 신앙적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뇌와 명예를 벗어날 길이 없었다. 특히 인촌이 추구한 국력배양사업은 일제가 가장 싫어한 교육, 문화, 언론, 산업 분야에 걸친 사업이었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인촌은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다. 영웅호걸로 태어나지도 못하였고 뛰어난 언변이나 지식이 있는 인물도 아니었다. 그는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비범한 업적을

많이 남기게 된다. 그는 평범과 비범은 서로 상이한 차원이 아니라 동일 선상의 차원에서 연속되어 있다는 것을 일생 동안 보여준 바 있다.

인촌의 삶은 공선사후, 신의일관, 담박 명지로 엮어진 공의(公義)의 삶으로 그의 삶 자체가 '인간자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촌의 삶은 그 자체가 생산과 창조의 원동력으로서 그가 이룩한 사업의 업적이 나 성과 못지않게 소중한 여겨야 할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인촌에게는 정치가로서의 면모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정치인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정치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제하에서는 제국주의와 싸웠고, 해방 전후에서 건국까지는 공산주의와 싸웠고, 건국 후에는 독재와 투쟁하는데 일생을 바친 분이였다.

건국과 더불어 잠깐 이승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인촌은 해방정국에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

의 질서를 토대로 건국할 때에 이승만 박사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되어 그의 대통령 선출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건국절 기념식에 야당 대표로서 참석하여 너무도 감격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자기가 밀었던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된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 노선에서 이 대통령의 독선적 행보에 참지 못하고 결국 격렬한 비판을 담은 사임서를 남기고 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1955년에 인촌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자기를 비판하던 인촌이 서거하였을 때에 애도의 표시는 고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촌의 죽음을 속 시원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대인이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접 문상을 하며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절차도 진두지휘했다. 아울러 애절한 내용이 담긴 조사도 손수 직접 쓰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구절도 담겨있다. “이 시대에 애국자연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진정한 애국자는 인촌 김성수다”라는 구절이다.

인촌이 추구하던 국력배양의 힘은 가시적이고 유형적이고 물리적인 힘이였다. 산업을 일으켜 경제력을 키우고, 과학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인촌의 신앙적인 목표였다. 그러면 인간 자본으로서의 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첫째,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에도 전면에 나서는 것을 삼가고 뒤에서 도와주고 보좌해주는 역할을 좋아하였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타고나면서부터 그러한 후원자적 체질을 지니고 있었다. 연단 위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것도 꺼리는 체질이였다. 스스로도 자기는 앞에서 나서는 것보다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자기 체질에 맞다고 생각하였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그의 나이 27세에 중앙학교를 인수하게 되는데 그때 교장으로는 언론과 교육계의 원로인 유근을 모시고 실질적인 책임자인 학감의 자리에는 유학 시절 동창인 민세 안재홍을 앉히고 자기는 영어와 경제를 가르치는 평교사직을 맡게 된다.

그 이후에도 당신이 설립한 기관이지만 전면에 대표로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기관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전면에 나서게 되고 수습이 되면 역시 뒤로 물러나곤 하였다. 인촌은 어떠한 목표나 사업은 성취 자체가 중요하지 누구의 이름으로 성취되는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흔히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다. 인촌의 경우 체질적으로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사업의 성공적 성취에도 훨씬 도

음이 된다는 것도 몸소 터득했고, 실천해 온 이물이었다.

둘째, 공존적 상생이었다. 사유재산의 공유 및 공용화를 주장하고 실천에 옮긴 것은 그의 삶과 업적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유학 시절부터 어려운 친구들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학비를 도와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자원도 공유하고 공용해야 한다는 것이 인촌의 정신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화가 있다. 설산 장덕수선생이 동아일보 부사장으로 재직할 때 일이다. 당시 설산은 여러 곳으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아 전국으로 돌아다닐 때였다. 강연 다니느라 동아일보의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어느 직원이 인촌에게 시비조로 '설산은 동아일보 직원이 맞습니까?'라고 인촌에게 물었다. 인촌은 대답하기를 '설산의 식견과 해박한 지식은 동아일보가 전유해서는 안 되네. 우리 민족이 다 같이 공유해야 하네.'하고 그 직원을 타일렀다.

셋째, 인촌은 명분과 형식보다는 실리와 실용을 중요시하는 실천 위주의 삶을 전생을 통해서 추구하였다. 보전의 양계장 사건은 인촌이 얼마나 실리주의자였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의 하나이다. 보전 양계장에서 닭 200마리를 길렀는데 사료 부족으로 닭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당시 닭 사료는 총독부 축산과에서 관리

하고 있었는데 닭 모이를 구하려면 닭을 키우는 사람이 총독부 축산과에 찾아가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신청을 해야 했다.

인촌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총독부 축산과에 찾아가 정중히 절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닭 사료를 더욱 많이 받아 온다. 인촌은 당신의 체면이나 위신보다 닭 200마리의 목숨이 더욱 소중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나섰던 것이다.

넷째, '따르라'하는 자세보다는 '따라가는' 리더십의 자세이다. 인촌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보다 나은 의견을 찾아내곤 하였다. 언제나 참여와 토론의 광장을 활성화하고, 일방적, 수직적, 밀실적인 결정방식을 용인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지도자급 인사들이나 특히 정치인들은 상대방이 자기 의견에 따라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촌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차이에서 창의성과 새로운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주변에는 동질성보다 다양성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인촌이 다양성과 차이를 받아들이고 해서 모든 차이를 분별없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취하지 않았다. 인촌은 김구가 이끄는 임정의 법통을 지지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남북협상에는 단연코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인간

적으로 가까웠던 여운형이 좌파의 길을 걸을 때나, 민족의 지도자로 받들고 끝까지 지지했던 이승만이 집권 후에 독재의 길을 갈 때 그들과 당당히 정면으로 맞서 싸우게 된다.

인촌이 이끈 한민당의 특징의 하나가 누구나 의견을 자유스럽게 발표하는 당내 민주주의가 확보된 정당이라는 것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다. 한민당의 당내 민주화는 바로 인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는 공적인 면에서나 사적인 면에서 비밀이 없었다. 그래서 귀엣말이 없었고 밀담이 없었다. 그의 삶에는 항시 공개, 투명, 참여, 소통의 원칙이 내면화되어 있었다.

다섯째, 말보다 실천 위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인촌이 중앙학교에서 고하 송진우와 기당 현상윤과 함께 3·1운동을 계획하고 모의할 때에 제일 걱정하였던 것은 이 운동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계획에서 끝나버리거나 앓나 하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족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초기에는 참여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나중에 가서는 흐지부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인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 3·1운동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경 유학생들의 2·8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국내에서는 민족의 지도자급들을 찾

아가 참여를 종용하였고 종교계 지도자들을 찾아가 민족지도자와 종교 세력을 동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남강 이승훈 목사를 찾아가 막대한 자금을 후원함으로써 기독교 세력을 동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인촌은 다음과 같은 말을 이병헌을 통해서 남긴다. 백사(百事)에 유시(有始)면 유종(有終)이니, 초지를 관철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면 성실, 정려, 근면해야 하고 백절불굴의 일심으로 임사무의(臨事無疑)하며 물위심급(勿爲心急)하고 의리를 존중하고 친우간에 신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

위의 글은 인촌의 평소 생활과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고 그의 끝을 보려면 성실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하고 백절불굴의 마음가짐으로 일단 일에 착수하면 의심을 버리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신의를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촌의 삶은 처음부터 실천적 삶 바로 그것이었다.

여섯째, 인촌의 삶에는 구차한 변명이 없었고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을 떠맡기는 법이 없었다. 그는 일본의 침탈행위를 탓하기 전에 우리의 힘없음을 한탄하였다. 참기 어려운 오해나 모욕을 당해도 변명하고 해명하는 일이 없었다. 친일파라고 지적을 당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인촌의 모습이었다. 아울러 그는 모든 일에 있어 우선순위를 따지면서 행동을 하였다.

임정 요인들은 인촌을 포함해서 한민당을 친일분자들의 집합체라고 매도하면서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하 송진우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인촌을 향해서 울분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 인촌은 고하를 향해 “지금은 우리가 건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하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자제해야 하네”하면서 오히려 고하를 위로하였다. 해공 신익희도 처음에는 인촌을 친일분자로 질타한 바 있지만 인촌의 참모습을 알고 난 뒤에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였다고 한다.

일곱째,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칠 때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사업은 엄청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촌은 이 어려움을 결코 외부에 발설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홀로 새기고 감당하는 자세로 살았다. 중심이 되는 자기가 흔들리고 약한 자세를 보이면 주위 사람들도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하여 사업상의 동지들에게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위기에 처하고 경방이 존폐 위기에 몰리고, 한민당과 민국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도 절망하고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자하고 소박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되면 쉽게 포기할 것 같은 인상이었지만 그의 강인하고 끈질긴 실천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그의 인간관계도 특이하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게 되는데 더러는 그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원망하고 질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두 가지 경우만 살펴보기로 한다. 한 가지는 이강현과의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춘원 이광수와의 관계이다.

이강현은 서울 출신으로 인촌보다 3년 연상으로 구라파에서 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후에는 중앙학교에서 물리와 수학을 가르쳤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직 기술자였다. 인촌이 경성방직을 설립하자 취체역을 맡아 전무취체역을 맡은 박용희와 더불어 실질적인 운영의 책임을 맡게 된다. 이강현이 직기를 구입하려 일본 나고야에 갔다가 3품 거래에 손을 대서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게 된다. 면 업계에서 3품이라고 하면 면화, 면사, 면포를 가리키는 것이고 3품 거래라면 오늘날 증권 거래와 비슷한 것이었다.

이강현은 유희자금을 이용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을 도우려는 선의에서 증권에 손을 댔으나 본전은 고사하고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 손해로 회사는 존폐위기에 처하게 된다. 회사 간부들의 분노와 인촌의 낙담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이때 전무를 맡았던 박용희는 “손해가 확대되기 전에 파산처분을 하고 문을 닫자”고 주장하였다. 이때 인촌은 다음과 같은 결의에 찬 이야기를 한다.

“3·1운동을 겪지 않았다면 나도 문을 닫는 것이 현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1 운동은 우리에게 생기와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 경성방직은 작으나마 그 희망의 하나입니다. 경방이 손해를 더 보지 않으려고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기서 경방이 문을 닫는다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감히 근대적 산업에 손을 대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슨 얼굴을 들고 한길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또 일본인들은 우리를 얼마나 멸시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촌의 이러한 결의에 찬 의지에 중역회의는 활기를 찾게 되었다. 그런데 박용희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는 새로운 출발이 어렵다면서 이강현을 내보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대부분의 중역들도 이에 동조한다. 이에 인촌은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말로 다음과 같이 자기의 소신을 밝혔다.

“그 점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우리 경방에 도움이 되는 것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둥이 하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 이번 일을 불문에 부친다면 그 사람은 경방을 위해서 분골쇄신할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한다면 돈 잃고 사

람까지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의 헌신 없이는 경방의재건도 기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번 일의 뒷수습은 저와 이강현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촌의 간곡한 주장에 이강현은 취체역 겸 지배인의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었다. 인촌의 예언은 적중하였다. 이강현은 이 사건 이후로 혼신의 힘을 다해 경방을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에 춘원 이광수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춘원은 인촌보다 한 살 연하였다. 인촌이 춘원에게 베푼 것은 아주 각별한 것이었다. 이 당시 춘원은 동료들 사이에서 수재로 평판이 자자하였다. 인촌은 춘원을 만나자마자 홍명희로부터 수재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춘원같은 사람이 많이 배워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 유학을 권유한다.

인촌은 당시 학교 사정이 어려워 궁색한 형편이었지만 학비를 대줄 수 있다고 말한다. 춘원은 여기에 감격한다. 진학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춘원은 인촌의 도움으로 1915년 4월에 와세다대학 철학과에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학비 문제를 해결한다. 그 후로 춘원이 친일 문제로 곤경에 처하고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었을 때 재기의 길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인촌이다.

드디어 종합지 『개벽』에 ‘민족개조론’을

발표한다. 이 집필 사건으로 추원의 집은 박살이 나고 춘원은 두문불출하고 문필계에서도 완전히 소외되었다. 이를 가장 딱하게 본 사람이 인촌이었다. 인촌은 고하송진우에게 춘원을 도와줄 길이 없겠느냐고 묻는다. 고하는 동아일보가 잘못하면 돌팔매질을 당할까 걱정이라고 망설인다.

인촌의 거듭되는 제의에 고하도 동조합으로써 춘원은 객원 기사를 거쳐 드디어 편집국장이 된다. 이 무렵 춘원은 농촌 계몽소설 「흙」을 동아일보에 연재하면서 장안의 지가를 올릴 정도로 갈채를 받는다. 그러던 춘원이 동아일보를 등지고 조선일보로 가게 된다. 사람들은 춘원을 ‘의리없는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인촌은 한 번도 그를 비방한 적이 없었다. 아마 인촌은 그의 품위와 자존심을 생각해서 일체의 언급을 피했을 것이다. 춘원이 늘 인촌에게 죄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의 편지에서 알 수 있다.

“... 산지에 일이 없어 고요히 생각하때 오직 지난날의 잘못들만이 회한의 날카로운 칼날로 병든 심혼을 어이웁니다. 모두 모래 위에 엮지른 물이라 다시 주워담을 길 없애오매 더욱 고민만 크웁니다. 형도 광수에게서 해 받은 분의 한 분이십니다. 형의 넓은 마음은 벌써 광수의 불신을 잊어버리셨겠지만 어쩌다 광수의 생각이 나시면 유쾌한 기억이 아니실 걸 생각 하오면 이 마음 심히 괴롭습니다. ... 지난

48년간에 해온 일이 모두 덕을 잃고 복을 깎는 일이어서 형을 마음으로 사모하면서도 형을 가까이 할 인연이 항상 적사오며 은혜 높으신 형께 무엇을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물과 심이 다 빈궁한 광수로서는 아무 드릴 것이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광수로서 오직 한 가지 일은 늘 중심에서 형을 넘하여 건강과 복덕 원만하기를 빌고 사람을 대하여 형의 감덕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1939년 6월 17일 제 이광수 배상

2. 친일 문제에 대한 시비

광복이 되면서 좌익세력들은 인촌을 친일파로 몰았다. 친일의 근거로써 인촌이 학병 권유연설을 하고 다녔으며, 또 매일 신보에 학병 권유 글을 썼다는 것이다. 일제가 직접 간접으로, 때로는 강압적으로 학병 지원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 오면, “나는 그들의 교육을 맡았지, 전쟁터로 가라마라 하는 임무를 맡은 게 아니다”라고 냉담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 외에도 동아일보가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광고수입을 받았다는니, 경성방직이 일본의 보조금을 받았다는니 등 친일의 근거를 대는 요인들이 적지 않았다. 하나 하나씩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학병 권유연설에 대해서 살펴보기

로 한다. 당시 연설 현장에 있었던 김진웅(고려대 법대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인촌이 마지못해 한 것이 분명하다. 행사 마지막에 인촌의 연설이 잡혀 있었다. 등단한 인촌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들고 “오늘 아침에 총독부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읽으라고 하기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라고 담담하게 읽고 단에서 내려왔다.

읽으려면 읽어야지 별 도리 없는 입장에서 문건을 읽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인촌의 형편으로서 총독부에서 하라면 해야지 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인촌은 되도록 학병 권유연설을 피하기 위해서 전곡농장에 내려가 병을 핑계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한 번은 칭병(稱病)이 통하지 않아 춘천에 끌려가 단상에 오르게 되었다. 단 위에 오른 인촌은 단 한마디만 하고 단에서 내려왔다. 즉 “이 사람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나와서 하는 분의 말을 이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단에서 내려와 버렸다. 다음에 등단한 분이 설산 장덕수였다.

이것은 인촌이 자기가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을 남에게 떼어 넘기려는 자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상에서 연설이나 강연이 힘들고 부담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촌은 단상에서 연설이나 강연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글 쓰는 일도

즐거하지 않았다. 보전 교장으로 있을 때에도 학생 상대의 연설은 장덕수가 도맡아서 하였고 다시피 하였다.

자기의 학병 권유 강연을 장덕수가 대신했다고 해서 인촌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에 자기의 책임을 장덕수에게 떼어 넘기기 위해서 대신 강연을 시켰다면 인촌은 정말로 비굴한 사람으로 낙인찍혔을 것이다. 그는 앞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더 더욱 아니었다. 그의 인생역정을 추적해보면 그는 주로 뒤에서 돕는 일을 하였지만 항상 책임은 앞에서 지는 사람이었다.

다음은 매일신문에 실린 학병 권유의 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총독부는 몇몇 인사들을 지명해서 학병을 격려하는 글을 쓰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단을 전달한 사람은 매일신보 기자인 김병규였다. 그 명단에는 김성수, 송진우, 여운형, 안재홍, 이광수, 장덕수, 유진오 등이었다.

당시 유진오는 자기는 어떻게 쓰겠지만 글을 쓰지 않는 인촌이 걱정되었다. 김병규는 유진오를 만나기 전에 인촌에게 들려 인촌의 글은 자기가 대필하겠다고 하자 인촌은 꼭 써야 한다면 대필은 하되 글의 내용을 반드시 유진오에게 보이고 내도록 부탁하였다. 인촌에게 전화로 확인한 유진오는 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글이 무난하다고 생각되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요즘 한결같은 순층의 마음으로 군문에 들어간 우리 학병들의 전도는 승리와 광명이 있을 뿐이다. 이제 대망의 징병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는 학생이 없는 가정이라도 적령기의 청년 남아를 가진 집에서는 모두 이 며칠 동안 반도 전역이 감격으로 환송하는 장쾌한 병역의 성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반도 출신의 젊은 병사들을 전열로 보내는 것은 실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떠나는 병사나 보내는 부모 형제, 이 광경은 이웃집의 일이 아니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머지않아서 내 앞에 당하는 내일 일을 이제 학병을 보내면서 다시 크게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내 우리가 학병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점, 또는 당자도 준비가 부족했던 점도 점차 개선되어 징병의 진에 유감이 없게 될 것이다.

이 글이 발표되자 총독부에서는 뜻뜻미지근한 글이라고 불만을 표시한다. 그런데 이 글이 좌익들이 인촌을 친일파로 모는 근거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그 신문에 같이 실렸던 여운형의 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촌의 글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 글이 인촌의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학병 권유 문제로 친일 시비를 건다면 인촌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다. 인촌이 총독부의 메모를 읽지 않고 스스로 연설문을 만들어 학병 권유 연설

을 하였어도, 매일신보에 대필을 하지 않고 스스로 글을 썼어도 인촌을 친일분자로 모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논리다. 그들이 하라면 별도리가 없는 일제침략자시대 상황이었다.

인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힘들게 벌여놓은 모든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결의가 있었다면 그들의 강제성을 뚫 압력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촌은 국력배양을 위한 신앙적 자세로 일구어 놓은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는 있었어도 생명보다 소중한 보성전문, 동아일보, 경성방직, 중앙학교 등을 포기할 수 없었다. 연희전문의 백낙준, 이화전문의 김활란 등도 비슷한 처지였다. 친일이 아니라 부일附日의 소리를 들어도 그가 피와 땀을 흘려가꾼 역사적 과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친일 문제의 또 하나는 광고수입 문제였다. 즉 동아일보 재정상태가 일본의 광고수입의 증가로 안정적 기틀을 다졌다는 것이다. 1931년에 국내 광고가 36.2%일 때 일본의 광고 수입이 63.8%로 늘어나게 된다. 신문의 생존은 광고수입에 의존하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항력의 상태였다.

동아일보가 문을 닫을 각오를 가졌다면 모르되 존속하려면 일본의 광고 수입은 생명줄이었다. 인촌으로서 동아일보의 생존은 최우선 가치였다. 친일파 아니라 별스러운 누명을 써도 동아일보의 문을 닫

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동아일보는 실질적으로 조선의 정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동아일보가 일본의 광고 수입에 크게 의존했다고 해서 기존의 독립 및 민족주의 노선을 늦춘 것은 아니었다. 이 무렵에 당한 발매 및 판매금지, 정간 등의 강제조치를 수없이 당해야만 했던 쓰라린 순간들이 많았던 점 감안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세 번째 요소는 총독부 출입이 빈번하였다는 것이다. 총독부 출입 역시 인촌으로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족을 위한 학교와 기업을 운영하는 인촌으로서서는 그들이 오라면 가야지 결코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다.

네 번째 요소는 인촌이 친일단체 창립에 발기인 이사 및 감사로 참여 및 활동했으며, 각종 시국강연에 연사로 참여함으로써 일제의 전시 동원정책에 협력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발기인 및 이사로, 1941년에는 흥아보국단의 이사로, 임전보국단의 감사로 활약하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친일단체의 평의원으로 활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 가입은 인촌 자신도 모르는 일제의 강제성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친일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임종국도 일제 총독부는 조선의 명사들에게 꼭두각시 노릇을 강요하면서 온갖 협박을 자행했으며 그런 가운데

명의로용은 다반사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지향(서울대 교수)은 지적하기를 1937년 이후로 조선의 유지계급들이 일제에 마지못해 따르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의 강제적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일제는 전쟁의 명분하에 공개적이고 공공연한 동조와 협력을 강요했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당하거나 지하로 숨을 각오가 되어있지 않으면 협력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경성방직이 일본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일본인 기술자를 고용하였고, 일본인 출자도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해야 했고 이를 위해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경방이 문을 닫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한국 산업화의 뿌리요 뼈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들어 인촌을 친일파라고 하는데 이는 친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친일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침략자 일본 정부에 아부하고 찬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는 일본을 자발적으로 돕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야 한다. 위협과 탄압과 강권적 요구에 못이겨 마지못해 하는 행위를 친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언어의 남용이요, 오용이고

모함이고 자기 집단을 향한 야망이다.

그러나 개인적 이익이 아닌 민족의식과 국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룩해 놓은 교육, 언론 산업 등의 사업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강압적 요구에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따른 행위를 친일이라고 하면 이는 억지의 논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인촌의 친일 문제는 형식논리나 정파적 시각에서 다루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필히 민족사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법의 형식논리로 다루어서는 더 더욱 안 되고 오직 정의로운 법의 정신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인촌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큰 이익 즉 국익을 위해서 자기의 깨끗한 몸가짐 즉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이익을 버렸던 것이다. 친일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끝까지 국익을 굳건히 지켰던 고귀한 삶을 살았던 인촌 김성수선생이야말로 당시로서 유일한 선각자 중의 한 분이고 인간 자본으로서 표상이라 생각한다.

유행성역병 방역(流行性疫病 防疫)

죽산(竹山) 김만 원(金萬源)(필암서원 군장의)

거년에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침범하니
각처에 방역 소독하느라 어제오늘 분주하네
관리들은 은근히 예방접종 좋다 하고
역마병이 반복해서 계속 퍼질까 두렵네
집 떠난 자식들 근심걱정 무겁고
마을 지킨 외론 늙은이 답답한 마음 깊네
지극히 괴로운 나의 심정을 어찌 다 말할까
참고 견디면 반드시 몸과 마음 건강할 날 있으리라

去年猖獗我東侵
各處防消奔昨今
官吏慙懃良預接
疫魔反復懼連臨
離家少子憂懷重
守里孤翁鬱意深
極苦吾情何盡說
忍來必有健身心

- 보성향교 산양문회(山陽文會) 101회 한시백일장 입상작

인촌仁村 김성수 선생의 꿈

신광조(인촌사랑방 대표)

한국 사회에서 역사나 법률 판단이 쟁트의 실증주의, 즉 증거가 되는 자료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다. 인간은 없고 자료만 있다. 인촌도 결국 그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대리 강연과 글이 증거로 문제되어 부관참시를 당했다. 이것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었다.

나는 인촌연구를 하면서 인촌을 ‘친일 파매국노’로 매도하는 분들에게 울부짖으며 외치고 싶다.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인촌이 속과 겉이 일치한 친일행위를 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라고. 인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제발 찾아달라고... 인촌은 적어도 자신의 일신을 위해 살지 않았고, 자신의 앞가림을 위해 부평초처럼 살지 않았으며 일제에 협조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매우 가슴 아파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과 양심이라고 불리는 대법관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판결을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인촌의 마음과 애국애민정신에 대해 살펴보았느냐

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공부를 해보았느냐고.

인촌 친일파 혐의 시발이자 중심에 섰던 전 고려대 사학과 강만길 교수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당신의 판단으로 그토록 역사의식이 없는 비양심 인사 친일파 김성수가 자식처럼 여긴 고려대학교에 오랫동안 봉직하신 건가요? 실력이 없어서인가요, 연줄이 없어서인가요? 인촌 친일 판정을 주도했던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나 맹목적으로 그 판단을 추종하고 따르는 전교조 등 좌파계열 사회단체에도 묻고 싶다. 당신들은 인촌을 알아보기 위해 조그마한 노력, 인촌에 관한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보았느냐고.

해방 다음 해 가을 보성전문이 고려대학교로 발전했을 때 미국에 망명 중이던 서재필 박사가 고려대학에 강연 차 왔다. 당시 대강당 등에서 서재필은 강연을 했고 인촌 김성수, 기당 현상윤, 현민 유진오 등 교수들이 강연을 들었다. 그 때 서재필은 자신은 장신이므로 연단 밑에서 말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

는데, ‘애국자는 누구냐?’에 대해서 말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도 애국자이지만 조선 안에서 꾸준히 민족운동을 한 사람도 애국자라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다.

당시의 화제는 ‘누가 이 나라의 대권을 잡느냐?’였는데, “여기 김성수와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누구보다도 조선 사정을 잘 아는 애국자라 대통령에 적격이란 뜻으로 서재필은 말했다고 한다. 인촌은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재물을 보관하는 청지기로 자처했다. 시대의 영웅 주윤발의 한 달 용돈이 11만 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모은 7천억원을 세상을 위해 다 내놓고 떠난다고 한다. 그는 진짜 영웅이다.

선각자 중에는 인촌이 그런 삶을 산 사람이다. 만일 인촌이 돈에 의탁하여 살려고 했다면 그렇게 형극적인 민족주의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다. 바이블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있다. 인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민족을 위해 모두 사용했다. 인촌은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이다. 겸허했다. 감히 천하에 앞서려고 하지 않고 항상 뒤에서, 아래에서 조역자가 되었다. 그리했으니까 사람들이 인촌을 떠받들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어느 때부터인가 인간미는 다치지 않고 투쟁에 능숙하거나

처세술이나 잔재주에 능한 자를 똑똑하다고 하는 몹쓸 병이 생겼다.

그런 인간은 아무리 지위가 높거나 돈을 많이 벌어도 실은 인간의 급수로는 중간도 못되는 자들이다. 행정을 할 때도 보면 온갖 잔머리와 기술, 교언영색으로 출세도 하고 잘 나가는 자들도 부지기수다. 어찌 보면 이제 보편화가 되어버린 것 같다.

그러나 인촌은 사람을 잘 보고 잘 썼다. 인촌이 상좌에 있어 교만을 피웠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을까. 지금 한국은 아리아욕我利我欲이 난무한다. 여야가 저렇게도 싸우고 김○흥, 이○용, 황○호가 신광조에게 밤낮 두들겨 맞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말 인촌이 그림다.

한마디로 인촌은 큰 그릇이었다. 종재기만도 못한 인간들이 인촌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꼴이 참으로 우습다. 그러다가 분노한다. 노자의 ‘대국하류’와 같고 니체의 ‘바다’였다. 인촌은 인촌리 추성천이 줄포 앞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을 가을 빛 국화 옆에서 보았을 것이다. 모든 상류의 세류細流를 다 용납할 수 있는 대하大河와 같았다.

나는 왕새우에 소금을 안주삼아 인촌을 생각하며 증류식 고창소주를 마신다. “남의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섬기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한 분이 바로 인촌이다.

너희가 빛진 것 하나도 없다

— 한국전 참전용사 윌리엄 빌 웨버 대령의 말씀

라미 현(본명 현효제)은 ‘한국전 유엔 참전용사를 웃게 만들고 그들을 기억하게 만들자’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솔저: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찾아서’를 추진 중이다. 그는 “사진이란 게 돈 버는 수단도 되지만 현재의 것을 기록해 다음세대에 전달하는 도구일 수 있다”며 “프로젝트 솔저는 다음세대를 위해 기록을 남기는 공동예술작업”이라고 소개했다.

만나본 유엔 참전용사 중 가장 감명 깊고 기억에 남는 노병은 누구인가? 윌리엄 빌 웨버(95세) 예비역 미 육군대령이다. 웨버 대령은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19명의 동상 중 판초를 입고 소총을 든 동상 모델로도 잘 알려진 미국 전쟁영웅이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을 지내기도 한 분이다.

2019년 6월 웨버 대령의 메릴랜드 자택을 방문해 사진액자를 선물하자 웨버 대령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자신이 될 해지면 좋겠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미 69년 전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그 빛을 조금 갚는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대부분의 참전용사는 이 말에 꼭 안아주거나 고맙다는 말을 꺼낸다. 그런데 웨버 대령은 표정이 굳어지더니 정색을 했다. 그러더니 “너희가 빛진 것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누구에게나 자유를 가진 사라들에겐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자유가 없거나, 자유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되찾아주고 지키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건 그 자유를 지키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그건 우리 의무다. 다만 우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얻게 했으니 너희도 의무가 생겼다. 북녘 동포들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의무다. 그 의무를 다했으면 한다.” 말했다.

현 작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미국 남북전쟁 이후, 전쟁 중 부상으로 팔다리 2중수족을 차고 현역 복무한 첫 군인인 웨버 대령은 “내 한쪽 팔과 다리가 없는 것보다 한반도가 분단돼 있는 것이 더 가슴 아프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한국사랑은

각별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더그러스 맥아더 사령관으로부터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을 해방하라는 명령을 직접 하달 받은 그는 일본 군수기지 등을 찾아 700여 명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면서 우리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당시 전투에서 느꼈던 아픔과 상황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그가 씩 웃으며 “나 그때 오른팔이 없어졌는데, 아프지 않았어”라고 대답하기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사실 소변보는 도중 얼어버리는 강추위였기에 팔이 절단됐을 때 그 절단면이 바로 얼어버렸고, 그 바람에 혈액 손실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내가 만난 노병 중 가장 의지가 강한 분이였다.

부패한 민주사회에서 언제나 권력은 최악의 인물들의 몫이 된다

부의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진 사회에는 전반적으로 애국심, 덕, 지성이 건재한다. 따라서 정치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더욱 건강해진다. 반면에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치가 민주화될수록 오히려 사회의 건강을 해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부패한 독재정부보다 그 자체로서 더 나쁜지는 않겠지만 국민성에는 더 나쁘게 작용한다.

부패한 민주사회에서 권력은 언제나 최악의 인물들의 몫이 된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이 휩박받고, 비양심적인 인물들에게 성공의 기회가 제공된다. 최선의 양심적 인물을 바닥으로 가라앉히고 최악의 비양심적인 인물들에게 정상의 길을 열어준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국민들 또한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존경을 조작하는 권력자의 특성을 닮아 가게 되므로 국민의 도덕성 또한 퇴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상태로 전락한 사례들로 가득하다.

- 헨리 조지(1839~1897)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토지가치세의 주창자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을 곁에 두고 오래도록 즐기는 방법, 『자연관찰일기』

참 부럽다. 클레어 워커, 찰스 E. 로스가 쓴 『자연 관찰 일기』 같은 책을 읽은 다음 자연으로 뛰어나갈 요즘 아이들이 정말 부럽다. 내가 어렸을 때에도 이런 책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허구한 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휘돌아다니던 시절에 이 책이 내 곁에 있었다면 나는 지금쯤 훨씬 더 훌륭한 자연과학자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책 32쪽에 저자들이 나열해 놓은 자연 일기를 쓰면 길러진다는 기술과 지식의 목록을 보라. 그저 몇 가지만 들어보자.

“과학적이고 심미적인 관찰력”

“창조적이고 능숙한 글쓰기”

“탐구심, 독창성, 통찰력”

“명상, 집중, 자가 치유”

“자신감과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그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들한테서 이런 능력들을 보고 싶지 않겠는가? 내 아

이가 이런 능력들을 고루 갖춘다면 그 이상 무얼 더 바라겠는가?

나는 종종 “글 잘 쓰는 과학자”라는 칭송을 듣는다. 남들이 잘 쓴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참으로 엄청난 양의 글을 쓰고 산다. 물론 자연과 전혀 관계없는 글을 써야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쓰는 대부분의 글은 어떤 형태로든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그 많은 글을 그리 큰 고통 없이 쓸 수 있는 데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다른 글쟁이들에 비해 나는 소재의 빈곤을 거의 겪지 않는다. 저 광활한 자연에서 피오는 내 글의 소재가 마를 리 없기 때문이다.

자연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이야깃거리들이 여기저기 흐드러져 있다. 그저 이것저것 주워다가 들려주면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했던가? 어릴 때부터 자연 일기를 쓰면 탐구심과 과학적인 관찰력이 늘고, 집중과 명상을 통해 독창성과 통합력을 얻고, 심미적인 관찰력과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함양되어 창조적이고

능숙한 글쓰기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자, 무얼 망설이는가?

이렇게 좋은 교육 방법이 점차 그 설 자리마저 잃어가고 있다. 번잡한 도시 한복판에 사는 우리 대부분에게는 이제 자연 일기를 쓰기 위해 찾을만한 곳이 없다. 이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마운트 오번 묘역은 하버드대학 교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공동묘지이다. 이곳은 가신 이들이 부러울 지경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정말 멋진 자연공원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분명해지는 일지만 자연 일기는 꼭 깊은 숲 속에 가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찾아보면 자연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 있다. 하지만 자연이 자꾸만 아스러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 일기를 쓰는 법을 어서 빨리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해 준다. “알면 사랑한다!” 내가 수없이 떠들어대는 말이다. 자연도 알아야 사랑하게 되고 보호하게 되는 법이다. 자연 일기를 쓰다보면 저절로 자연에 대해 보다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자연의 수호자로 클 것이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이다. 우리가 사는 집, 즉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다. 나는 이 점을 시애틀 추장만큼 명확하게 짚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백인들을 상대로 들려준 그의 연설문으로 내 글을 끝맺음하련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온 것들을 당신들도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 대지가 우리 어머니라는 사실을. …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대지의 일부라는 것을. …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땅의 아들 딸 모두에게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그물을 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그물을 이루는 하나의 그물코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그물에 저지르는 일은 곧 우리 자신에게 저지르는 일입니다.”

- 최재천 교수 저 『통섭의 식탁』(명진출판)
233~237쪽에서 따옴.

신축년(2021년) 필암서원 춘향제 봉행

신축년 필암서원 춘향제가 지난 3월 30일(음 2월 17일) 봉행되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을 주향으로 모시는 필암서원(원장 박병호)의 춘향제는 울산김씨 문중과 장성을 비롯한 이 고장 유림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허정 광주에덴병원장이 초헌관을, 조갑호 담양대성학당 부이사장이 아헌관을, 서동철 장성새마을회 회장이 종헌관을 맡아 술잔을 올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간소하게 춘향제를 올렸다. 춘향제가 끝난 후에는 청절당에서 하서경전 성독회가 약식으로 치러졌다.

축소하여 간소하게 추향제 봉행

9월 26일(음8월 20일)에 필암서원 추향제를 축소하여 간소하게 봉행하였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어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이 고장 유림과 산양회원들에게 초청장을 모두 보내지 않고 한정된 인원에게만 통지한 것이다. 60여 명이 참석하여 조촐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으로는 대전의 남간정사 도유사이신 송준빈(宋俊彬)님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술잔을 올렸다.

산양회 이사회 6월 8일 17시 청절당에서 열리다

21년도 산양회 첫 이사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뒤늦게 6월 8일 17시에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열렸다. 정환담, 김재수, 박래호, 김장수, 이충원, 김봉곤 이사과 고달석 감사, 김성수 도유사, 김진산 필암서원 별유사가 참석하였다. 김재수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충원 총무가 경과보고를 하고 안건을 논의하였다. 안건으로는 • 오산 오인균전이사장님 애도 및 조문, • 2021년도 하계 학술강연 9월 중 개최 문제, • 〈하서 도학과 문학〉 35호 발간, • 하서 선생 인적관계망 연구에 대한 박병호 원장님 제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박병호 원장님이 〈하서 선생 인적관계망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다. 큰 돈을 후원할 테니 저보다 추진계획서를 작성해보라고 하셨으나 하지 못했더니, 하서학술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김정수 이사를 통해서 이 안을 제안했다고 하셨다. 계획서를 올리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서학술재단으로부터 들었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계획서를 작성해보라고 하셨으나 너무 방대한 작업이어서 아직도 하지 못했다.

여러가지로 고민하다가 이를 하기 위해서는 하서전집 국역본 개역작업을 하면서 텍스트를 세세하게 검토하면 하서 선생의 인적관계망이 조사되고, 이를 바탕으로

로 하서전집의 정본(正本)을 확정하는 작업을 겸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김재수 이사가 이사회에 제안하여 논의하였다.

하서전집 국역본 개역 및 정보 연구의 중요성

이 작업은 하서연구를 활성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현존 국역본이 한글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많고 틀린 곳도 상당하다. 심지어 하서집 자체도 오류가 상당수 발견되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서의 인적 관계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초연구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문헌적인 연구는 많은 자료를 섭렵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소득은 별로 없어서 학자들이 기피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 작업을 통해서 하서집 국역본 개역과 하서집 정보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산양회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박병호 원장님의 후원과 문중의 지원으로 이를 시작하면 이를 바탕으로 하서학술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리되면 한국고전번역원에 하서집 국역본 간행신청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이 지역 인재들로 ‘하서집 국역본 개역 및 정보연구위원회’를 꾸려 추진했으면 한다. 김진웅 전도유

사, 김장수, 김재수, 김동하, 김봉곤, 김상집 그리고 전남대 김대현 교수, 김경호 교수, 박명희 박사, 조선대 안동교 교수, 탁현숙 박사 등 많은 지역 인재들의 참여가 요망된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박병호 필암서원장, 하서 인적 관계망 연구에 1,000만 원 후원

필암서원과 산양회에 계속 후원해 주셨던 박병호 원장님이 이번에 또 하서(河西) 인적(人的) 관계망 연구를 위해 1,000만 원을 후원하셨다. 하서 연구의 활성화에 바탕이 되는 하서집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걱정해오신 박병호 원장님은 하서 선생이 당대 명사들과 폭넓게 교유한 많은 인물들에 대한 인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늘 강조해 오셨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연구에 써달라고 1,000만 원이란 거액을 후원해 주셨다. 9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서 선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산양회 이사회 열다

지난 10월 12일 12시에 광주향교 옆 예원식당에서 본회 이사회가 열렸다. 고달

석, 김승규 감사의 연임을 결의하고 회보 발간을 논의하였다. 김재수 이사장은 10월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305호에서 인촌 김성수 선생 탄생 130주년 기념강연에 100만 원을 후원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오산 鰲山 오인균 吳仁均 본회 회장,
필암서원 도장의 道掌議 소천**

오산 오인균 본회 회장께서 금년 봄 소천하셨다. 코로나 때문에 회원들이 알지 못해 조문하지 못해 뒤늦게 애도하였다. 오인균 회장님은 8년간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을 맡아 본회 발전에 헌신하였으며, 필암서원 도장으로 오랫동안 헌신하셨다. 월봉서원, 봉암서원, 고산서원 도장으로 봉사하여 이 고장 유림들의 존경을 받았다.

본회 고문이신 김상하 삼양사 명예회장 별세

삼양그룹 성장 이끈 주역,
최장수 대한상의 회장으로 활동

평생 산업보국을 위해 대를 이어 힘써 '재계의 덕장'으로 칭송받아온 김상하 金相廈 삼양그룹 명예회장이 1월 20일 95세로 별세했다. 수당 김연수 선생의 7남 6녀 중 5남으로 1926년에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삼양사 말단 사원으로 입사하여 삼양그룹을 성장시킨 주역으

로 평가받는다. 산업보국의 목표를 이루려면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해온 고인은 이를 묵묵히 실천했다. 1988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해 12년 동안 재임한 최장수 회장이다.

외환위기 때 거의 매일 상의로 출근하며 한국경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헌신하였다. 아울러 대한농구협회장,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한일경제협회장 등 100여 개 단체 회장직을 맡았다. 고인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제35회 인촌상 仁村賞 시상식

인촌 김성수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35회 인촌상 시상식이 10월 8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인촌상은 일제 강점기에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성방직과 고려대를 설립한 민족 지도자 인촌선생의 유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1987년 제정되었다.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용훈)와 동아일보는 인촌 탄생일인 10월 11일에 맞춰 매년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수상자는 • 아주자동차대학(교육), • 박세은 발레리나(언론-문화), • 이종화 고려대 정경학장 겸 정책대학원장(인문-사회), •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부 교수(과학-기술)로 각

각 상장과 메달,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이용훈 이사장은 “이 자리의 주인공들은 남다른 열정과 신념으로 사회에 이바지한 분들이다. 인촌상 수상이 더 큰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작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동아꿈나무재단 김병건 이사장

본회 연구활동에 1,000만 원 지원

동아꿈나무재단(이사장 김병건)은 필암서원 산양회의 연구활동과 학술발표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을 후원하였다. 본 산양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김병건 이사장은 필암서원과 본 산양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매년 아낌없이 후원해주시고 있다.

인촌 김성수 선생

탄생 130주년 기념 강연회 열려

10월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01실에서

인촌 김성수 선생(1891~1955년) 탄생 130주년을 기념하고, 인촌의 삶을 조명하는 강연회가 11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01호실에서 <대한민국 건국과 호남>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제를 발표한 주대환 죽산 조봉암 기념사업회 부회장은 “미군정 시기 한민당이 정권을 주도하였으며, 한민당은 호남을 뿌리로 한 정당으로서 미군정 3년 동

안 장관, 기관장을 맡았던 한국 사람들은 거의 한민당 사람들이었다”면서 “인촌선생이 창당한 한민당은 그 혼란한 시대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는 산파로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주 부회장은 또 “인촌은 100년 전 당시 조선사람 가운데 실로 드물게도 근대인이었고, 허세와는 거리가 먼 실용주의자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회를 주최한 민족통일 광주광역시 협의회는 참석자들에게 백완기 고려대 명예교수가 쓴 『인촌 김성수의 삶』이라는 책을 나눠 주었다. 토론에서는 오수열 조선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최영대 인촌사랑방 대표, 주명준 전주대 명예교수, 김재수 광주교대 명예교수, 주익종 경제학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촌을 비롯해 고하 송진우, 근촌 백관수, 가인 김병로, 낭산 김준연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을 조명했다.

이 날 강연회는 호남일보, 민족통일 광주광역시협의회, 사실과 과학 문화행동이 주최하였고, 플랫폼 ‘통합과 전환’, 인촌사랑방이 주관하여 수고하였다.

이날 행사를 위해 김성수 문정공 도유사 100만 원, 필암서원 산양회 100만 원, 김상덕 진한 조각장식 박물관장 100만 원을 후원하였다.

필암서원 산양회 활동사항

- 2014년 9월 13일 필암서원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서정기 성균관장 “유교와 현대 민주주의” 강연
- 2014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의 “하서의 철학과 복성부(復性賦)” 강연
- 2015년 4월 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뿌리회 이용규 전 회장 “강화학과 정신과 독립운동” 강연
- 2015년 10월 2일 추향제 올리고 박광순 학술원 회원 “유교의 종교성에 관한 일고찰” 강연
- 2015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오종일 전주대 교수 “하서 선생 시의 천명사상과 그 지향성” 강연
- 2016년 3월 26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하서 선생 <천명도 제사>의 우리말 해석에 대한 소견” 강연
- 2016년 7월 8일 집성관에서 김충호 훈몽재 산장 “도학의 원류와 하서 선생 도학시”로 강연
- 2016년 9월 12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고재유(전 광주광역시장) 인사말
- 2016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강연
- 2017년 3월 1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초헌관 정병석 전남대 총장 강연
- 2017년 7월 3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원광대 김봉곤 교수 “하서 김인후 선생의 절의와 도학” 강연
- 2017년 10월 15일 추향제 올리고 정운엄 초헌관 “하서 선생은 해동의 주돈이요 호남의 공자” 강연
- 2017년 12월 4일 광주향교에서 17회 정기총회 후 조선대 이종범 교수 “하서 김인후의 출처의리와 도학세계”란 주제로 강연
- 2018년 4월 5일 춘향제 봉행하고, 청절당에서 초헌관 정환담 학장이 “하서 사상의 사적맥락에 관한 고찰”이란 논제로 강연
- 2018년 9월 22일 추향제 봉행하고, 청절당에서 초헌관 김평호 나주향교 전교가 “유교에 대한 이해”란 논제로 강연
- 2019년 3월 21일 춘향제 올리고, 오세인 초헌관(전 광주교검장)이 “유학전통의 계승과 유림의 역할” 강연.
- 2019년 7월 27일 집성관에서 김장수(동양문화학 회장) “서명사천도 연구를 위한 발제”, 탁현숙(조선대 교수) “김인후와 기대승의 황룡강변 소재 시 고찰” 강연
- 2019년 8월 17일 우등사에서 세계유산 등재 고유제(박병호 원장), 종가 부조묘에서 종손과 종친 고유제
- 2019년 9월 17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김동원(전북대학교 총장) “현대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강연
- 2019년 10월 23일 세계유산등재 기념비 제막식 축제
- 2019년 12월 9일 집성관에서 전북대 김유근 교수 “중용과 대학 해석에 나타난 윤후의 사천지학의 구조와 성격” 강연
김재수 “서명사천도에 대한 관건” 강연, 하서 도학과 문학 33호 발간
- 2020년 10월 15일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축전 행사 축소 거행
- 2020년 10월 23일 추향제 봉행. 초헌관에 신형철 전 광주향교 전교
- 2020년 12월 하서 도학과 문학 34호 발간
- 2021년 3월 30일 춘향제 봉행. 초헌관 허정(광주에덴병원장)
- 2021년 9월 26일 추향제 봉행. 초헌관 송준빈(남간정사 도유사)

중용 20장 애공문정장 哀公問政章

사람의 도道는 정치에 민감하게 나타나고, 땅의 도道는 나무에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대저 정치라는 것은 일단 사람을 확보하기만 한다면 빠르게 자라나는 갈대와 같지요. 그러므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을 얻으려면 군주 자신의 몸에 바른 덕성이 배어 있어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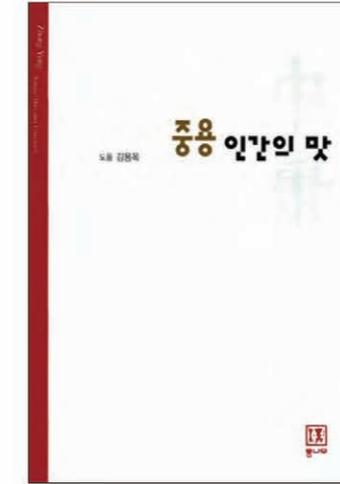
몸을 닦는다는 것은 도道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인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仁은 무엇일까요? 인이라는 것은 발음 그대로 인仁입니다. 사람의 근본바탕의 감정이지요. 인의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친근한 사람을 친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과 짝을 지어 생각해야 할 것이 의義입니다. 의義란 무엇일까요? 의는 발음 그대로 의宜입니다. 마땅함이지요. 의의 세계에 있어서는 현인賢人을 객관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人道敏政, 地道敏樹. 夫政也者, 蒲盧也.
故爲政在人, 取人以身, 脩身以道, 脩道以仁.
仁者, 人也, 親親爲大; 義者, 宜也, 尊賢爲大.

- 도올 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 246쪽

중용 인간의 맛



도올 김용옥 지음

中庸

21세기 인류문명의 새로운 가치방향, 지고의 자기계발서

〈중용한글역주〉를 어렵게 느낄 일반대중을 위하여 쉽게 쓴 책이다. 그러나 『중용, 인간의 맛』은 이미 나와 있는 〈중용한글역주〉의 요약본이 아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서도 그 전체 의미를 새롭게 발전시킨 것이다. 중용사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들어있고, 현대인의 삶에 짙한 도움을 주는 자기계발의 풍요한 내용이 번득인다. 그래서 사상가로서의 도올 김용옥 교수의 면모가 더 잘 발휘된 작품이다.

중용 원문은 주자가 분장한 33장 체제에 따라 1장부터 각 장의 한문 원문이 있고, 그 위 아래로 현대 중국어 표기음과 한글 독음을 달아준다. 한자를 몰라도 누구든지 중용 원문을 우리말 또는 현대 중국어로 읽을 수 있다. EBS특강은 이 책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된다. 도올선생의 EBS방송강의와 함께, 이 책은 고전인 〈중용〉을 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그들이 일상적 삶속에 매일매일 실천하게 하는 길잡이가 되게 할 것이다.